

22대 대통령 선거

‘잠룡풍년’ 속 ‘2030년 승천’ 누구?

여야중진 10여명 2028총선 ‘시험대’



정청래



송영길



추미애



김민석



이광재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이재호

본회 편집위원장

지방선거가 끝났다. 관심은 벌써 차기 대권주자에게 쏠린다. 거론되는 인물만 10여명이 훨씬 넘는다. 가히 ‘잠룡의 시대’다. 당장 이재명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야당 정치인은 “정권 초기에 이렇게 많은 잠룡이 대통령을 에워싼 경우

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P나 C 같은 중진의원들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정치인은 튀어야 산다.’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다른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나 남았고, 여야 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므로 큰 갈등은 없을 것으로 본다. 한 여당인사는 “혹여 잠룡들의 ‘활거’를 걱정할지 모르나 그보다는 우리정치가 한 발 선진화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물들

은 대략 15명 내외. 40년 정통 보수 언론단체인 대한언론인회(회장 이종세)의 분석에 따른 결과다. 민주당에선 정청래, 김부겸, 송영길, 추미애, 김민석, 이상호, 정동영, 정원오, 강훈식 등이 앞줄에 이름을 올렸다. 비민주당 쪽에선 한동훈, 김문수,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조국 등이 포함됐다. 이들 중에서 정말 ‘승천’하는 용이 나올 것인가. 누구든 하기에 달렸다.

그렇다고 시간이 꼭 많은 것은 아니다. 잠룡들은 2년도 채 안남은 2028년 4월12일 총선을 치른다. 지방선거와는 차원이 다른 ‘진검 승부’다. 총선

을 주도하는 사람이 2030년 3월 대선(22대)에서도 유리함은 물론이다. 사실상 대선 레이스가 이미 시작된 셈이다. 지난달 25일 코리아 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도 공개됐다. 정치전문 폴리뉴스에 따르면 이 조사에선 한동훈(14.5%), 조국(11.1%), 김민석(10.8%), 강훈식(9.7%), 장동혁(9.4%), 정청래(8.9%), 황교안(6.2%), 김문수(5.6%) 순이었다. 물론 유의미한 수치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고 변수도 너무 많다.

〈2면에 계속〉

오세훈·한동훈 ‘新보수’ 급부상

〈1면에 이어서〉

선거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선거가 됐으면 하는 게 모든 유권자들의 바람일 것이다. 아마도 ‘잠룡’들은 그 절박함이 더할 것이다. 선거는 흔히 ‘계승선거’와 ‘심판선거’로 나뉜다.

계승선거는 전임자가 일을 잘해 그를 계승하는 게 목표가 되는 선거이고, 심판선거는 말 그대로 심판하는 선거다. 우리의 잠룡들은 어느 쪽에서 있는가. 그 위치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가 정권의 성격과 내용을 결정짓는다. 이 미묘함의

차이를 알고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잠룡의 한 조건일 터.

한 예로 선거가 계승선거가 되면 앞에서 언급한 정청래, 김민석에 더하여 박찬대, 서영교 등 친명 핵심그룹이 전면에서 나설 가능성도 크다. 반면 김동연, 강훈식, 김경수 등은 정책 역량과 중도 확장성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잠룡들도 움직일 것이다. 한동훈은 강한 대중 인지도와 선명한 대립구도를 바탕으로 이 정권과 맞설 것이고, 오세훈은 수도권 기반과 행정

경험을 앞세워 계속 안정적인 대안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들 것이다. 여기에 김문수, 나경원, 원희룡, 장동혁, 김재섭 등은 보수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존재감을 유지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새 시대, 바뀐 시대에 맞는 내용과 모습으로 경쟁했으면 한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다. 기존의 정치문법으로는 세상을 설명할 수도 없고, 국민의 마음을 얻지도 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實用)을 들고 나와 정권을 옮겨주었다. 그 실용마저도 낡은 느낌이다. 그 정도의 실용은 “이제 포장지로도 못 쓴다”고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다. 잠룡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

마무리 → 권영섭



與, 행정·입법이어 지방권력 장악

6·3 지방선거 민주당 완승

제9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승을 거두었다. 민주당은 전국 16개 단계장 중 경기, 인천, 충남북, 전남북, 제주 등 12곳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대구, 경북, 경남 등 4곳에 그쳤다. 이로써 이재명 정권은 행정-입법 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도 장악하게 됐고, 국정목표인 실용과 민생안정을 위한 동력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각종 공소 취소와 이를 위한 ‘사법개혁’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란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 못 한데다가 당의 철학과 진로를 놓고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써 패배를 자초했다. 당 안팎에선 ‘장동혁 대표 퇴진’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한동훈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에도 차체에 한국 보수정치의 미래에 대한 통렬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수가 ‘근대화의 신화’만으로 엄혹한

변화의 격랑을 더는 헤쳐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막판 기사회생이다. 줄곧 민주당에 끌려가던 그는 막판에 극적으로 정원을 제쳤다. 이 장면 속에 이번 선거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정원은 이 대통령이 “일 잘한다.”고 직접 언급까지 한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스타벅스 사건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 ▲자신의 투표용지 고의 누출 의혹 등으로 보수 유권자들의 심기를 건들었고 이게 정원과 오세훈의 판세를 극적으로 바꾸었다.

정치분석가 홍범열(67·전 김영삼 정부 행정관)은 “줄곧 뒤지던 오세훈을 살려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습관처럼 툭툭 던지는 한마디가 보수층의 분노를 불러오는 경우가 이 정권에서 유난히 많았던 것은 역설적으로 선거는 내가 잘 안다는 대통령의 자신감 탓”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자신감으로 충만한 대통령과 일합을 겨룰 사람들은 많다. 돌아온 추미애 의원도 그 중 하나다. 추의원은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출됨으로써 헌정 사상 첫 여성 도지사가 됐다. 추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다가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6선의원에 당대표(2016~2018년)까지 지낸 거물 정치인이다. 법무장관,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추 의원은 평소에도 남자 의원들을 뛰어넘는 당찬 의정활동으로 유명하다. 정치적 야심으로 정평이 난 추의원이 어떤 정치를 펼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과 정치권 사이에 갈등으로 인해 틈이 생긴다면 그 1호가 추 의원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끝으로 주목해야 할 사람은 한동훈이다. 만약 장동혁이 사퇴한다면 그 빈자리는 한동훈이 채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나아가 한동훈의 가세는 향후 우리 정치의 지향점과 모습을 결정지을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한동훈 역시 자신에게 찾아 온 기적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 정권과의 강력한, 그리고 선명한

대외투쟁에 나설 게 분명하다. 정치권의 다툼은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급속히 수렴될 것이다.

그 과정이 민주적이고 이성적으로 진행되기를 빌어야겠지만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지는 알 수 없다. 두 사람 간의 상호 이해 배려, 그리고 이성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치권의 싸움은 당사자들보다 옆에서 역성을 듣거나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에 의해 더 격렬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이재호(본회 편집위원장)

지방선거 시장·군수·구청장 당선인

시·도지사

▲서울 오세훈 (국) ▲부산 전재수 (민) ▲대구 추경호 (국) ▲인천 박찬대 (민) ▲전남광주 민형배 (민) ▲대전 허태정 (민) ▲울산 김상욱 (민) ▲세종 조상호 (민) ▲경기 추미애 (민) ▲강원 우상호 (민) ▲충북 신용한 (민) ▲충남 박수현 (민) ▲전북 이원택 (민) ▲경북 이철우 (국) ▲경남 박완수 (국) ▲제주 위성곤 (민)

교육감

▲서울 정근식 ▲부산 김석준 ▲대구 강은희 ▲인천 조성훈 ▲전남광주 김대중 ▲대전 오석진 ▲울산 조용식 ▲세종 강미애 ▲경기 안민석 ▲강원 강삼영 ▲충북 윤건영 ▲충남 이병도 ▲전북 천호성 ▲경북 임종식 ▲경남 권순기 ▲제주 고의숙

지방선거 시장·군수·구청장 당선인

서울 기초단체장

▲종로 구청장 유찬종(민주) ▲중구 구청장 김길성(국힘) ▲용산 구청장 김경대(국힘) ▲성동 구청장 유보화(민주) ▲광진 구청장 김경호(국힘) ▲동대문 구청장 최동민(민주) ▲중랑 구청장 류경기(민주) ▲성북 구청장 이승로(민주) ▲강북 구청장 정창수(민주) ▲도봉 구청장 김동욱(민주) ▲노원 구청장 서준오(민주) ▲은평 구청장 김미경(민주) ▲서대문 구청장 박운기(민주) ▲마포 구청장 유동균(민주) ▲양천 구청장 이기재(국힘) ▲강서 구청장 진교훈(민주) ▲구로 구청장 장인홍(민주) ▲금천 구청장 최기찬(민주) ▲영등포 구청장 조유진(민주) ▲동작 구청장 류삼영(민주) ▲관악 구청장 박준희(민주) ▲서초 구청장 전성수(국힘) ▲강남 구청장 김현기(국힘) ▲송파 구청장 서강석(국힘) ▲강동 구청장 이수희(국힘)

부산 기초단체장

▲중구청장 최진봉(국힘) ▲서구청장 공한수(국힘) ▲동구청장 강철호(국힘) ▲영도구청장 김철훈(민주) ▲부산진구청장 김영욱(국힘) ▲동래구청장 장준용(국힘) ▲남구청장 박재범(민주) ▲북구청장 정명희(민주) ▲해운대구청장 김성수(국힘) ▲사하구청장 김태석(민주) ▲금정구청장 윤일현(국힘) ▲강서구청장 박상준(민주) ▲연제구청장 주석수(국힘) ▲수영 구청장 강성태(국힘) ▲사상구청장 서태경(민주) ▲기장군청장 우성빈(민주)

대구 기초단체장

▲중구청장 류규하(국힘) ▲동구청장 우성진(국힘) ▲서구청장 권오상(국힘) ▲남구청장 조재구(국힘) ▲북구청장 이근수(국힘) ▲수성구청장 김대권(국힘) ▲달서구청장 김용판(국힘) ▲달성군수 최재훈(국힘) ▲군위군수 김진열(국힘)

대전 기초단체장

▲동구청장 황인호(민주) ▲중구청장 김제선(민주) ▲서구청장 전문학(민주) ▲유성구청장 정용래(민주) ▲대덕구청장 김찬술(민주)

광주 기초단체장

▲동구청장 임택(민주) ▲서구청장 김이강(민주) ▲남구청장 김병내(민주) ▲북구청장 신수정(민주) ▲광산구청장 박병규(민주)

인천 기초단체장

▲강화군 박용철(국힘) ▲옹진군 장정민(민주) ▲제물포구 김찬진(국힘) ▲영종구 손화정(민주) ▲미추홀구 김정식(민주) ▲연수구 이재호(국힘) ▲남동구 이병래(민주) ▲부평구 차준택(민주) ▲계양구 박형우(민주) ▲서구 구재용(민주) ▲검단구 김진규(민주)

울산 기초단체장

▲중구청장 김영길(국힘) ▲남구청장 임현철(국힘) ▲동구청장 천기욱(국힘) ▲북구청장 이동권(민주) ▲울주군수 이순걸(국힘)

경기 기초단체장

▲수원특례시장 이재준(민주) ▲용인특례시장 이상일(국힘) ▲고양특례시장 민경선(민주) ▲화성특례시장 정명근(민주) ▲성남시장 신상진(국힘) ▲부천시장 조용익(민주) ▲남양주시장 최현덕(민주) ▲안산시장 이민근(국힘) ▲평택시장 최원용(민주) ▲안양시장 최대호(민주) ▲시흥시장 임병택(민주) ▲파주시장 손배찬(민주) ▲김포시장 이기형(민주) ▲의정부시장 김원기(민주) ▲광주시장 박관열(민주) ▲하남시장 이현재(국힘) ▲양주시장 정덕영(민주) ▲광명시장 박승원(민주) ▲군포시장 한대희(민주) ▲오산시장 조용호(민주) ▲이천시장 성수석(민주) ▲안성시장 김보라(민주) ▲구리시장 신동화(민주) ▲포천시장 백영현(국힘) ▲의왕시장 김성제(국힘) ▲양평군수 전진선(국힘) ▲여주시장 이충우(국힘) ▲동두천시장 박형덕(국힘) ▲과천시장 신계용(국힘) ▲가평군수 서태원(국힘) ▲연천군수 김덕현(국힘)

강원 기초단체장

▲춘천시장 육동한(민주) ▲원주시장 구자열(민주) ▲강릉시장 김중남(민주) ▲동해시장 이정학(민주) ▲태백시장 이상호(국힘) ▲속초시장 이병선(국힘) ▲삼척시장 박상수(국힘) ▲홍천군장 신영재(국힘) ▲횡성군수 장신상(민주) ▲영월군수 김길수(국힘) ▲평창군수 심재국(국힘) ▲정선군수 최

국회의원 재·보궐 당선자 명단

▲부산 북구갑 한동훈(무소속) ▲국(민주) ▲경기 하남시갑 이광재(민주)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윤용근(국힘) ▲충남 아산시을 전은수(민주)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김의겸(민주)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박지원(민주) ▲제주 서귀포시 김성범(민주)

▲부산 북구갑 한동훈(무소속) ▲대구 달성군 이진숙(국힘) ▲인천 연수구갑 송영길(민주) ▲인천 계양구을 김남준(민주) ▲광주 광산구을 임문영(민주) ▲울산 남구갑 김태규(국힘) ▲경기 평택시을 유의동(국힘) ▲경기 안산시갑 김남

승준(민주) ▲철원군수 김동일(국힘) ▲화천군수 김세훈(민주) ▲양구군수 김왕규(민주) ▲인제군수 최상기(민주) ▲고성군수 함명준(민주) ▲양양군수 김정중(민주)

충북 기초단체장

▲청주시장 이장섭(민주) ▲충주시장 이동석(국힘) ▲제천시장 이상천(민주) ▲보은군수 최재형(국힘) ▲옥천군수 황규철(민주) ▲영동군수 정영철(국힘) ▲증평군수 이재영(민주) ▲진천군수 김명식(민주) ▲괴산군수 송인현(국힘) ▲음성군수 조병욱(민주) ▲단양군수 김문근(국힘)

충남 기초단체장

▲천안시장 장기수(민주) ▲아산시장 오세현(민주) ▲당진시장 김기재(민주) ▲서산시장 이완섭(국힘) ▲공주시장 최원철(국힘) ▲보령시장 엄승용(국힘) ▲논산시장 백성현(국힘) ▲계룡시장 이용우(국힘) ▲태안군수 윤희신(국힘) ▲홍성군수 박정주(국힘) ▲예산군수 최재구(국힘) ▲청양군수 김홍열(국힘) ▲부여군수 이용우(국힘) ▲서천군수 유승광(민주) ▲금산군수 문정우(민주)

경북 기초단체장

▲포항시장 박용선(국힘) ▲경주시장 주낙영(국힘) ▲김천시장 배낙호(국힘) ▲안동시장 권기창(국힘) ▲구미시장 김장호(국힘) ▲영주시장 황병직(국힘) ▲영천시장 김병삼(국힘) ▲상주시장 안재민(국힘) ▲문경시장 김학홍(국힘) ▲경산시장 조현일(국힘) ▲의성군수 최유철(국힘) ▲청송군수 윤경희(국힘) ▲영양군수 오도창(국힘) ▲영덕군수 조주홍(국힘) ▲청도군수 박권현(무소속) ▲고령군수 이남철(국힘) ▲성주군수 전화식(무소속) ▲칠곡군수 김재욱(국힘) ▲예천군수 안병윤(국힘) ▲봉화군수 최기영(국힘) ▲울진군수 황이주(무소속) ▲울릉군수 남한권(무소속)

경남 기초단체장

▲창원시장 강기윤(국힘) ▲진주시장 조규일(무소속) ▲통영시장 강석주(민주) ▲사천시장 박동식(국힘) ▲김해시장 정영두(민주) ▲밀양시장 안병구(국힘) ▲거제시장 변광용(민주) ▲양산시장 나동연(국힘) ▲의령군수 오태완(무소속) ▲함안군수 차석호(국힘) ▲창녕군수 성낙인(국힘) ▲고성군수 하학열(국힘) ▲남해군수 류경완(민주) ▲하동군수 김현수(국힘) ▲산청군수 유명현(국힘) ▲함양군수 진병영(국힘) ▲거창군수 이흥기(무소속) ▲합천군수 김윤철(무소속)

전북 기초단체장

▲전주시장 조지훈(민주) ▲군산시장 김재준(민주) ▲익산시장 최정호(민주) ▲정읍시장 이학수(민주) ▲남원시장 양충모(민주) ▲김제시장 정성주(민주) ▲완주군수 유희태(민주) ▲진안군수 전춘성(민주) ▲무주군수 황인홍(민주) ▲장수군수 최훈식(민주) ▲임실군수 한득수(민주) ▲순창군수 최영일(민주) ▲고창군수 심덕섭(민주) ▲부안군수 권익현(민주)

전남 기초단체장

▲목포시장 강성휘(민주) ▲여수시장 서영학(민주) ▲순천시장 손훈모(민주) ▲나주시장 윤병태(민주) ▲광양시장 박성현(무소속) ▲담양군수 박종원(민주) ▲장성군수 김한중(민주) ▲곡성군수 조상래(민주) ▲구례군수 장길선(민주) ▲고흥군수 공영민(민주) ▲보성군수 김철우(민주) ▲화순군수 임지락(민주) ▲장흥군수 사순문(조국) ▲강진군수 강진원(무소속) ▲완도군수 김신(무소속) ▲해남군수 명현관(민주) ▲진도군수 이재각(민주) ▲영암군수 우승희(민주) ▲무안군수 김산(민주) ▲영광군수 장세일(민주) ▲함평군수 이남오(민주) ▲신안군수 김태성(조국)



홍남부두 철수 작전때 피란민을 가득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호 전경.



다섯명의 새생명을 태우고 1950년 12월말 거제항에 도착한 메러디스 빅토리호 수송선.

‘전쟁 자유 평화’상징 휴머니즘의 교훈

홍남철수 때 빅토리호서 출생 손양영 함경남도 지사 인터뷰

6·25 76주년 특집

76년 전, 6·25전쟁이 치열하던 1950년 12월 25일 새벽 홍남철수작전 때, 자정을 넘어선 시각, 메러디스 빅토리호 수송선에서 태어난 ‘김치 1호’ 손양영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만났다.

그는 “동해바다 배에서 태어나, 거제에서 유년 시절 7년, 항도 부산에서 10년을 살았죠. 아버지는 ‘1주일 정도면 고향에 갈 것이라 여기고 부모님과 동생들, 어린 남매를 두고 떠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하셨고, 어머니는 어린 아들 딸의 이름을 부르며 평생 새벽기도를 드렸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처연했다.”고 회고했다.

“성탄절 새벽, 빅토리호 선박에서 아기 5명이 태어났죠. 알몬드 장군은 출생 순서에 따라 ‘Kimchi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제가 ‘김치 1호’죠. 그때 배에는 산부인과 의사는 물론, 가위도 없어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산과경험이 있는 할머니가 이빨로 잘라주었고, 여인들이 치마를 벗어 덮어주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부산까지 밀렸던 국군이 유엔군의 참전으로 북진, 압록강에 이르자, 100만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후퇴가 시작되면서, 홍남에선 피란민 20만명이 ‘저 배를 타야 산다!’며 몰렸다. 유엔군 사령관이 ‘민간인의 군함 승선 불가’ 조치를 내리자, 1군단장 김백일 장군과 의사 현봉학이 호소, 알몬드 장군이 민간인의 승선을 허락, LST



실향민으로 함경남도 도정을 맡고 있는 손양영 지사.(사진함남도청 제공)

1950년 성탄절 새벽 피란선서 아기 5명 탄생 ‘김치1호’ 불러

군함 6척, 상선 5척, 빅토리호 등에 모두 9만 8,100 여명이 올라탔다. 레너드 라루 선장은 많은 물품을 바다에 던지며 민간인을 태운 뒤 ‘신이여! 당신에게 맡깁니다.’라고 기도했고, 사령관은 출항명령과 동시에 홍남부두를 폭파시켰다.

쌍용을 거쳐 효성물산 철강부 직원으로, 미국 LA 파견군무도 했던 손양영은 2023년 8월, 제21대 함경남도 지

사로 취임했다. 손 지사는 도민 및 탈북민과 소통하며 통일과 귀향염원을 다지고 키워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자유민주 평화통일이다. 전쟁은 휴전 되었으나 후세들에게 통일개념과 인식을 분명하게 바로 심어줘야 한다. 남북통일이 되면 우리는 아시아 첫번째 국가로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한준 (본회 부회장)

이달의 시

6·25 아침

푸른 잎 하늘 향해 손 흔들 때
향긋한 꽃 냄새 퍼져 나가고
눈부신 햇살 머금은 이 계절에
그대여!
듣느냐 그날의 뼈아픈
통한의 소리를

꽃잎마다 맺힌 신 목소리
그 먼 지난 날 피끓는 아우성

지금도 내 가슴 쥐어뜯으며
아름인 채 아물지 않는
우리들의 깊은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보는
6·25 아침
오, 그날을 어찌 잊으랴

장석영 (본회 명예회장)

“국민들 위기의식 실종…제2의 6·25 우려”

6·25 76주년 특집

‘방송 종군기자 1호’ 한영섭 인터뷰



한영섭 (6·25 종군기자 동우회 회장)

동족상잔으로 표현되는 6·25가 발발한지 올해로 벌써 76주년. 전쟁의 역사는 총과 포탄만으로 쓰이지 않는다. 펜 한 자루가 수백, 수천만 명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세계 각지에서 달려온 종군 기자들은 카메라와 수첩을 들고 전장 곳곳을 누볐다. 그들이 남긴 기록 덕분에 우리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어난 영웅들의 이야기를 오늘날에도 생생히 만날 수 있다. 6·25사변 때도 300여 명의 국내외 종군기자가 전장을 누빈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 영웅’ 한영섭(98) 6·25종군기자동우회 회장도 그중의 한 사람이다.

한 회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방송종군기자다. KBS(당시는 서울중앙방송국) 소속으로 국방부를 출입하던 20대 초반, 그는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다. 6·25가 발발하기 4개월 전인 1950년 2월 초에 육군사관학교에 입소, 육사생도들과 함께 2주간의 군사교육도 받았다. 전



2000년대 초 국군의날을 맞아 계룡대에서 ‘6·25 동지’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영섭 회장, 유재홍 장군, 김진섭 종군기자, 백선엽 장군.

“낙동강 전선에서 패한 북의 패잔병 군단에 의해 퇴로가 막혔을 때, 이제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한번은 산비탈에서 교전이 있었는데, 내 옆의 동료 병사가 날 보고 ‘자세 낮춰!’라고 소리치는 순간 총알이 날아왔고, 그 병사는 불행하게도 그 총에 맞아 전사했어요. 나를 살리고 대신 목숨을 잃은 거죠.”

그런데도 김일성 정권은 침공직전까지도 상투적 평화공존전술로 위장하며 우리가 수감하고 있던 거물급 남파간첩 이주하와 김삼용을 북에 억류 중이던 조만식 선생과 맞교환하자는 속임수를 썼다. 그 무렵 남한에선 5월 총선거가 치러졌다.

돌비석의 증언

권준희 (본회 회우·시인)

오천 개 돌비석이 일제히 고동친다
반세기 전, 밀림의 포성에 섞인 황토 속 절규
이곳 동작동 차가운 비문 아래 흐른다

백마 선봉에서 청룡의 기개를 북돋던
호랑이 박 소대장, 자네의 열변이 들리는가
부산항 떠나며 외친 자유의 소명은
귀는 광야의 하얀 연기로 피어올랐다

장렬히 산화한 뉘, 태극기에 싸여 돌아오고
조국의 번영을 기약하던 뜨거운 목소리는
현충원 묘역의 별빛되어 반짝인다

우리 여기 흑석동 비석 앞에 증언하노니
보릿고개 끊어내고 자유민주 일궈낸 건
사선을 넘나든 32만 노병의 피땀이었음을

그날의 기록이 오늘,
산증인의 눈물이 되어 말없이 흐른다.

KBS 취재기자로 북진 통일 전투 참가 낙동강 전선에선 숱한 죽음 고비 넘겨

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감이라도 했던 것일까.

“글쎄요, 정국은 불안했고 이대로는 안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늘 저를 괴롭혔어요. 입대해 기본군사교육을 마친 뒤 동부전선 국군 1군단에 소속돼 종군기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북진 때 원산과 함흥을 지나 청진까지 진격하는 대열에 합류했고요. 이 과정에서 종군기자 18명이 순직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영국 4명, 프랑스 2명, 대한민국과 필리핀 각 1명이었습니다.”

훈련도 예사롭지 않았다. 4kg이 넘는 M-1 소총으로 ‘앞에 총’을 한 채 태릉에서 청량리역까지 구보를 하고, 다시 구보로 돌아가야 했으니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실전에서도 한 회장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한 회장은 오늘의 안보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국민 각자가 정신무장을 단단히 할 것을 주문한다. “우리나라는 6·25 이후 경제발전은 이룩했으나,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위기의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제2의 6·25를 맞을 수도 있어요. 안보의식은 정당이나 정파의 전유물이 아니고, 전 국민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요.”

100세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그의 목소리는 젊은이 못지않게 힘이 있고 우렁찼다. 지금도 하루 200번씩 팔굽혀 펴기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제1호 여성 아나운서 강영숙씨가 그의 부인이다. 2년 전 작고했다.☞

조희곤(본회 편집위원)

‘95세 노병’의 마지막 사명

“역사의 교훈 망각하면 미래없다”

6·25 76주년 특집

박기병 6·25참전 언론인회 회장

“이 책의 출간으로 6·25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진실된 교훈을 바로 일깨우는 동시에 해이해지기 쉬운 안보관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최근 6·25전쟁 참전 언론인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담은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를 출간한 박기병(95) 6·25참전언론인회 회장(전 대한언론인회 회장). 그는 1일 ‘대한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은 아직도 6·25의 침략적 만행을 뉘우치기는커녕 그동안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판문점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수시로 핵무기와 미사일 등으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책에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19세로 춘천사범학교 3학년 재학 중 학도병으로 참전한 박 회장의 체험담도 실려 눈에 띄었다. 그는 교복 차림으로 춘천에서 방어하고 있던 포병 16대대에서 포탄을 나르며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키는 데 일조했다.

“1950년 6월 25일은 비가 세차게 내리던 일요일이었어요. 교생실습 준비를 위해 학교에 갔는데 박노언 장교가 전쟁이 났다며 동료 학생들과 함께 남춘천역 앞에 있는 탄약고에서 포탄을 포진지까지 운반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후 10월 8일께 유격대 소대장을 맡고 있는 양구 용하초등학교 동창 친구를 만나 그의 권유로 군번 없는 유격대에 입대했다. 퇴각하는 인민군을 격퇴하는 임무를 띠고 대전차포 1문을 가진 병력으로 양구지구 전투에 투입됐다.

박 회장은 “250명쯤 되는 유격대의 임무는 양구 해안면에 집결한 인민군 패잔병을 소탕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어쩌다 보니 북한군 패잔병이 양구군을 에워싸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됐다”고 회상했다. 적군에 둘러싸인 채 며칠간 물만 마시며 버텼다. 아군 사상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박 회장은 고향인 양구 지리에 밝아 극적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앞에 설치된 ‘6·25 전쟁 사진전’에서 박기병 6·25 참전 언론인회 회장이 1951년 12월 11일 대구에서 열린 육군참모대학 개교식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 사진을 가리키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0년 직접 창립한 ‘6·25참전언론인회’를 진두지휘하며 6·25전쟁사 발굴과 기록보존사업 등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95세인 박 회장은 마지막 간절한 꿈이 몇 가지 있다고 했다.

첫째는 ‘춘천대첩기념관’ 건립이다. 박 회장은 6·25전쟁 3대 대첩 중 하나인 춘천대첩이 국군과 시민, 학생, 경찰이 힘을 합쳐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한 역사적 승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춘천대첩으로 북한군의 포위작전이 무산됐고 국군은 한강방어선과 낙동강 방어선을 정비할 시간을 확보했다”며 “결과적으로 유엔군 참전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나라를 지켜낸 전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둘째는 강원도 철원군의 ‘상감령전투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이다. 전쟁이 교착 국면으로 전개되던 1951년 8월부터 중공군은 철원군 상감령에 땅굴과 참호를 파고 난공불락의 지하 요새를 구축했다.

잊지 못할 ‘춘천대첩’ 기념관 건립이 꿈

춘천사범 동기생들과 현지 입대

그리고 그해 11월 2일 포병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보고 춘천사범학교 동기생 5명과 함께 12월 17일 포병 16대대에 현지 입대해 군번 ‘0551137’을 부여받았다. 이후 박 회장은 대대와 포대간 통신망을 구축하는 통신병으로 배치돼 1950년 12월 24일 춘천으로 출동해 7사단을 지원했다.

하마터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생이 될 뻔했던 사연도 소개했다.

당시 육군은 각 부대에서 육사 11기 생도를 선발했는데, 박 회장도 대상자에 포함됐으나 부대 작전장교가 극구 만류하는 바람에 군인의 삶을 살지 않고 기자의 길을 걷게 된 사연도 눈길을 끌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흥미로웠다. 박 회장은 포병 중장방첩에 따라 포병 창설 기간 요원으로 차출돼 전남 나주에서 제15 포병단 창설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1952년 3월 화천의 2군단 포병사령부에 배치돼 김화 어음산 전투에 투입됐다.

그 무렵 대구사범학교 출신인 박정희 준장이 포병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같은 사범학교 출신인 박 회장은

을 각별히 챙겼다고 한다. 특히 그해 9월 육군 고급 부관학교에서 행정간부요원 교육을 받고 인사과 선임하사로 복무하며 박정희 사령관에게 매일 결재를 받으며 친분을 쌓아 종종 부대 인근에서 함께 막걸리를 마시기도 했다고 한다.

휴전 후 1954년 8월 만기 제대를 앞두고 있었으나 박정희 장군이 “신설 부대의 기간요원이 빠져나가면 부대 운영에 지장이 있다”며 전역을 보류해 한 차례 제대가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10월 10일 장도영 2군단장, 박정희 장군의 축하와 격려를 받으며 3년 11개월의 군 생활을 일등 중사로 마쳤다.

백석산 전투 공로로 화랑무공훈장

그리고 6·25전쟁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양구지역의 백석산 전투 등에서 세운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이후 65년간 기자로 활동하며 ‘언론외길’을 걸어온 박 회장은 6·25전쟁에서 깨달은 교훈들을 후배 전우들에게 알리는 데 힘써 왔다.

강릉·춘천문화방송(MBC) 사장과 강원민방 사장으로 재직할 땐 육군3군단 예하 부대 안보교육에 매진했다.

중공군이 가장 위력을 발휘한 전투가 상감령 전투였다. 중국은 실제 상황보다 부풀려 대승을 거뒀다고 주장하는 등 최대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시진핑 주석체제에서도 ‘상감령’이라는 영화를 제작해 최고로 승리한 전투라고 자랑하고 있다.

셋째는 ‘9·28 서울수복기념관’ 건립이다.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에 점령당한 수도 서울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그동안 열세에 있던 한국군과 유엔군의 전세가 역전되기에 이르렀고,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한 것을 역사적으로 기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박 회장은 ‘제2의 6·25를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출간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 서부전선으로 간첩을 계속 침투시킨 사례들을 모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자는 취지이다.

박 회장은 특히 “적의 위협에 맞서 국가를 지키려면 역사를 알아야 한다”며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

박현수(본회 회우)

이대통령 ‘셀프 구제’ 위해 ‘국조’에 ‘공소취소 특검’ 민주당, 헌법이 정한 ‘형사 사법’ 훼손



김 화
본회 이사·편집위원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에 계류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불법송금과 대장동 사건 등의 검찰 조작기소 진상을 밝힌다는 목적으로 국회 법사위에 국정조사 청문회를 개최하고 야당이 신청한 증인은 배제하고, 증인 40여명을 출석시켜 증언을 들었다.

결과는 민주당의 기대와는 달리 허위진술 강요와 회유나 증거 위조변조 등 조작 기소의 증거가 드러난 것은 사실상 한 건도 없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자신이 직접 북한 리호남을 회장 방으로 안내했다고 서영교 위원장의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라는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차분하게 진술했다.

방 전 부회장은 2019년 7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경기도지사 방북비용으로 70만 달러를 줬다고 했다. 국정원이 주장한 리호남의 필리핀 부재설은 이 증언으로 힘을 잃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세간의 화제였던 연어술파티는 없었다고 거듭 말했다. 또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용이 아니라 쌍방울 추가조작 용도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회사가 다 상장폐지 되는데 무슨 추가조작이냐”면서 “세상이 바뀌었는데 윤석열 정권과 똑같다”고 일침을 놓았다.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는 위증 등 혐의로 국정조사 증인 31명을 공수처와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고발한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여러 혐의들이 검찰회유로 조작되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배치된 증언을 했거나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한 자들이다. 청문회에 불참한 김만배, 정영학도 동행 명령 거부를 이유로 고발했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말을 해준 남욱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제외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에 대해서 “검사의 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고발했다. 검사가 국조특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4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종합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문화일보 제공)

위원장에게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는 내용도 고발사유에 포함됐다. 사실을 말했다고, 위증 가능성이 있다고, 항의했다고 고발한 희한한 일이 법치국가인 민주공화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이들 증인의 진위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

제시하고 관련자를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순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해 재판에 가지 않고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했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재판에 앞서 지우는 게 이번 특검의 핵심이다. 그래서 ‘지우개 특검’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대통령 임기 중 직접적인 공소취소 요구는 부적절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했고, 경실련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정의당은 “대통령 엄호목적으로 특검법을 남용하고 사법절차를 흔드는 선례를 경계한다”고 비판했다.

특검 규모도 엄청나다.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170명,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합쳐 356명이다. 소요예산도 3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 사람의 죄지우기 공소취소를 위해 이처럼 많은 공무원과 국고를 소비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여론도 싸늘하다. 반대 46%, 찬성 27%다. 진보단체와 정당들도 특검 비판에 합세했다. 참여연대는

‘국조’에서 조작기소 실체없자 특검법 발의 진보정당 단체 국민여론 특검법남용 비판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자신들이 바라는 바와 반대로 끝나고 여론의 역풍을 맞자 화풀이 하듯 증인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정치적 보복으로 보이고 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정으로 보기 어렵다.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난 게 하나도 없는데 민주당은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5월 안에 속도전으로 국회 통과를 목표했지만 지방선거에 특검 발의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자 위기감을 느끼고 일단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문제는 시기가 아니라 내용이다. 조작기소였다면 그 증거를

이 특검은 헌법 11조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를 대통령에게만 예외 적용하는 초법적인 사법침해다. 그래서 법조계의 위헌요소가 제기됐던 것이다. 또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3권 분립을 파괴하는(사법3법으로 이미 파괴됐지만)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조작기소특검법엔 국정조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대통령 사건 5개가 추가됐다. 특검의 수사대상 12개 중 8개가 이대통령 연루사건이다. 대장동·백현동 비리·대북송금·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등 이대통령이 피고로 기소된 모든 현안사건이 포함됐다.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대통령 관련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의도다.

특검이 비리권력을 수사해야 하는데 역으로 비리권력을 지우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무서운 자가당착이다. 이런데도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국민 10명 중 7~8명이 공소취소를 모른다”고 생뚱맞은 말을 했다. 특검법 국회통과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한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알고 무시하는 행태다. 더욱이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특검법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17세기 이후 문명국가의 ‘법의 지배’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1987년 이후 37년간 유지돼왔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사법체계를 망가뜨린 행위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제 국민이 분노할 때다.”

“호르무즈 불길, 한·일 정상 협력으로 타개”

해협통과 안전대책 등 정보 공유 현안 합의



류종현
본지 편집위원,
전 MBC워싱턴특파원

세계 원유 수송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국적선 HMM 나무호가 피격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수출입 생명선이 정면으로 위협받은 국가적 위기다. 국민은 묻고 있다. 누가 공격했는가. 왜 우리 선박이 표적이 되었는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현안 질의에 착수한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내로 반입된 미상 비행체 잔해 분석 결과와 이란측 입장을 국회에 보고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냉철한 국가전략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다. 이 항로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도 흔들린다. 더구나 한국은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입국이다. 따라서 호르무즈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산업과 국민 생활의 위기다.

사건의 핵심은 국내에 도착한 미상 비행체 잔해 분석이다.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특정 국가의 무기 체계인지가 규명될 경우 국제정세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금속 성분과 파편 형태, 추진체 잔류 물질 등을 통해 공격 원점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익중심 냉정한 외교력 발휘해야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다. 국익 중심의 냉정한 외교력 발휘다. 바로 이 시점에서 5월 19일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방한 직전 “중동과 인도·태평양의 엄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 방향을 깊이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협력 방안’을 언급한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5월 19일 경북 안동에서 만나 에너지 협력방안등을 협의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안전대책 강화로 국민의 생명-재산 지켜야 과거사 논쟁보다 미래 생존전략 전환점 기대 ”

대목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일본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항한 사례를 목격하고 있다. 일본은 오랜 중동외교 경험과 독자적 대이란 채널을 활용해 위기관리 능력을 축적해 왔다. 감정이 아닌 현실로 보아야 한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영원한 국익만 존재할 뿐이다.

대한민국 또한 이제라도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이 과거사 논쟁의 반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역사적 감정의 재확인이나 대대한민국 선박과 국민의 안전 확보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의 공동안전 대책과 에너지수송 협력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보 공유, 해상안전협력, 긴급 구조 체계 구축, 보험 리스크 완화, 등 현실적 대책이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안동회담에서 에너지 안보와 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언론 발표문에서 “원유 수급 및 비축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LNG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원유, 석유제품 및 LNG 상호유통, 스와프 거래 등의 협력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이 서둘 외교를 통해서 이처럼 현안을 논의해 나기로 합의한 것도 의미가 크다. 차제에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문제까지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국의 전략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지정학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국제법적으로 공해상 선박 공격은 명백한 국제질서 도전이다. 하지만 증거 없는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외교적 고립을 부를 수 있다. 정부는 과학적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토대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재발방지로 국민 생명 재산 지켜야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다. 정부는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대책을 즉각 강화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제해상안전 협력체계와 연계한 실질적 보호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지금 호르무즈에는 단순한 유조선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이 지나가고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과거를 넘어 미래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협력”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호르무즈에 묶인 대한민국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실질적 해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한·일 정상회담에 임하는 두 정상에 바라는 국민의 바람이자 정부와 외교당국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

노조, 과도한 성과급 강요는 '자충수'

삼성전자, 파업 대처 '무인공장' 속도전→일자리 상실



이향숙
본회 부회장
수필가

요즘 언론을 뜨겁게 달구는 단어 하나가 '성과급'이다.

성과급은 근로자가 업무 성과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급여로, '업무 성과에 대한 대가'라는 뜻이다. 대체로 실적, 목표 달성 시 보상의 의미로 일정 비율로 차등 지급한다.

보너스와는 달리 성과급은 개인과 부서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성과급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계산한 특별상금 형식이다.

영업이익은 매출 총액에서 상품 원가와 판매비, 관리비를 더 차감한 금액이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본업(상품·서비스 판매)에서 발생한 이익을,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의 비용, 특별손익, 소득세, 부가세, 수출시 관세, 은행이자, 물류비 등을 더 차감해서 최종적으로 남는 이익을 뜻한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사업 실력', 순이익은 '최종 결과'로 이해하면 된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원인데 그 4배를 예상한 연간 영업이익 중 45조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노조 7만 4,000명이 1인당 6억원이 넘는 사상 최고의 거액이다. 6억 원 받아도 세금 2억 원을 내게 된다.

삼성전자는 가전부문과 반도체 부문으로 생산라인이 두 가지인데 이번 노조의 요구는 반도체 관련 영업이익에 대한 성과급이다. 순이익은 그보다 적어진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세계 제1위 수준으로 공인받고 있으며 SK하이닉스와 쌍두마차로 반도체 수출을 하고 있다. 날로 수출이 증가하고,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가 된 것이다. 노조는 1년치 영업이익을 계산하고 그 중 15%를 성과급으로 주고, 덧붙여 매년 성과급을 비율 상한선 없이 주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만들어 달라면서 어길 경우 파업도 불사한다고 했다.

노동부장관 주선으로 협상 끝에 10.5%의 성과급으로 합의를 봤지만 돈 주는 새 항목을 신설해서 결국 합



삼성전자는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에 AI로봇으로 무인공장을 만들겠다고 맞서고 있다.

의 내용은 노조 요구와 대동소이하다.

문제는 그 액수가 여전히 수억 원대로 너무 많다는 점이다. 회사에 대한 애정이 없이 오직 이기적이며, SK하이닉스도 성과급 6억 원 지급을 약속했다지만 아직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금액이다.

중소기업 직원 임금 연봉이 평균 3,000만 원인데 연 1억 3,000만 원 이상 받는 삼성전자 노조원의 과한 욕심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열등감, 박탈감, 위화감을 느낀다. 노조 회비 수

해왔다. 노조의 상습적 무기는 '파업하겠다'는 겁박이다. 파업의 손해를 막기 위해 고용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굴복할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점점 재미를 느끼며 요구를 급여 인상에 보태서 성과급까지 과하게 키웠다.

동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생각난다. 어떤 사람이 거위 한 마리를 키우는데 매일 거위가 황금알을 하나씩 낳았다. 처음엔 웬 황재인가 놀라고 기뻐다. 그러나 이후 매일 한 알을 낳

하고 있다. 자회사인 현대제철과 기아차 노조도 현대차와 똑같은 성과급을 요구해 회사는 역시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노조원은 모두 실직에, 자식 세대의 구직도 어렵게 변할 위험을 느끼고 갑자기 5월 하순부터 로봇 도입을 반대하며 파업할 뜻을 비치고 있다. 이 민노총들의 성과급 요구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져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20%를 요구, 카카오 등 많은 기업의 노조까지 성과

'AI로봇 美 공장' 이전 현대차 타산지석 삼아야

입은 월 3,500만 원, 임원들의 판공비 중 위원장은 월급 외에 노조 판공비로 월 1,000만 원을 받는다. 이래저래 실망한 노조원이 지난 한 달간 4,000여명이 탈퇴했다.

기업은 매일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해서 개발하고 사업을 확장하느라고 골몰하며 많은 예비자금이 필요하다. 과한 성과급을 달라고 강요하는 욕심은 회사의 연구개발과 재투자를 막아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예전에는 기업을 '갑'이라 하고 고용된 근로자를 '을'이라하며, 기업의 갑질을 많은 사람이 성토했다. 그러나 지금의 노조는 을이 갑 행세로 바뀐 행태다.

일부 노조가 갑질하는 상황으로 변

자 욕심이 커지고 더 많은 알을 원하게 됐다. 그래서 어느날 참다 못해서 뱃속에는 더 많은 황금알이 있을 거라 믿으며 배를 갈랐다. 뜻밖에도 속은 '꽉'이었다.

지금의 삼성전자 노조는 바로 황금알 낳던 거위 배를 가르기 직전의 상황이다. 지나친 성과급 요구는 자해일 수 있고, 자살골일 수도 있다. 과유불급, 뭇든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

삼성전자가 4월 23일 노조 투쟁대회를 시작한 날, 이재용 회장은 즉시 평택 공장의 가전 생산 라인을 완전 자동화로 바꾸어서 무인 시스템으로 결정했다.

또 반도체 공장을 현대처럼 100%

급 요구에 동참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따라 잡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도 6조 원의 지원금과 세금 감면, 대만 공장 유치 지원에 매진하고 있다. 그중 라피더스사는 성과급 없이 월급 5% 인상만 최근 노사가 합의했다.

전 세계가 반도체를 살리고 있는데 한국만 노조가 성과급을 나눠먹자며 역행하는 꼴이다. 노조의 투쟁 파업 선동이 계속되면 경제계에 큰 혼란이 닥칠까 걱정이다. 회사에 입사할 당시의 애사심을 기억하고 이제라도 상부상조, 양보하는 게 나라와 노조가 함께 살 길이다.☞

미·중 정상회담 ‘체면 세우기’로 끝났다

전면적 타결아닌 ‘스몰 딜’로 시간 벌기



이도선
본회 주필
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13~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당초 3월 말로 예정됐으나 2월 28일 발발한 이란전쟁에 집중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연기된 끝에 어렵사리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1기 때인 2017년 11월 이후 두 번째 방중이다. 당시 시진핑 중국 주석은 실세인 양제츠 국무위원을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 보냈고, 자금성을 통째로 대관하는 ‘황제 대접’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다.

이번에는 그러나 공항 영접도 실권이 없는 한정 국가부주석에게 맡겼고, 중국식 천하 질서와 제천의식을 상징하는 베이징 텐탄공원 기년전에 두 정상이 함께 오르는 형식적 예우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 사기에 방점을 찍었던 의전이 중국의 국가적 위상을 돋보이게 하는 연출로 바뀐 것이다.

중동에서 휴전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이 지난 5월 14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시간 15분 동안 열렸다.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G2(양대 강국)의 움직임에 지구촌의 관심이 쏠린 것은 당연지사다. 미국의 방중단도 이에 걸맞게 초호화판으로 꾸며졌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 미스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외교·안보·통상 분야 핵심 인사가 총망라됐고, 여기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 황, 애플의 팀 쿡, 보잉의 켈리 오트버그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가세했다.

하지만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극적 진전은 없고 서로 으르렁대다 적당히 체면 세우고 그만둔 느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원유수입국이자 배후 지지 세력인 중국에 대(對)이란 압박 동참과 확장방지 협조를 요청했으나 시 주석은 “중동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는 원론



지난 5월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악수하고 있다.

적 입장으로 미국의 일방적 군사 행동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은 미국의 대만독립 지지나 군사적 개입 확대는 “레드 라인(넘지 말아야 할 한계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며 중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시도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시 주석

상시적 소통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결국 양국은 극단적 충돌을 피하고 실용적 이익을 챙기며 일단 시간 벌기에 합의한 모양새다. 다시 말해 G2의 대결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직접 만나 과국을 막기 위한 ‘현상 유지’에 가까스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양안 문제는 여전히 최대의 뇌관이다. 정상회담이 끝나기 무

를 외교’ 형식으로 이뤄져 화제를 모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7개월간 다카 이치 총리와 네 차례나 만났으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만나 소통하는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했다”고 선언했다.

정상회담은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공급망 위기 공동대응에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한국은 공급망·초격차 기술 확보 주력해야

이 일본의 재군사화를 비난했을 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며 감쌌다.

정상회담이 양국의 첨예한 갈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지만 그렇다고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양국 현안의 전면적 타결이 어렵게 되자 무역과 안보 분야의 급한 불부터 끄는 ‘스몰 딜(제한적 합의)’에 만족한 것이다. 미국은 자국내 마약문제의 핵심인 펜타닐 단속에 중국이 협조하는 대가로 대중 관세를 일부 낮추고 ‘수출 통제 50% 규정’의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중국도 이에 호응해 희토류와 핵심 광물 수출 제한 조치를 1년간 유예하는 한편 보잉 항공기 200대와 대두·수수 등 미국산 농산물 구매, 석유·천연가스 수입 확대 등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노력을 약속했다.

양국은 이와함께 무역이사회와 4개 정기 고위급 회담 체제를 발족시켜

쉽게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의 통화 및 무기 판매 의사를 내비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했다. 1979년 미·중 수교 이래 미국 대통령이 대만 총통과 통화한 전례가 없다. 2016년 12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과 통화했을 때에도 중국이 거세게 항의했었다. 인공지능(AI)과 첨단 반도체 등 기술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봉책으로 1년 유예기간을 둔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관세 폭탄과 수출 통제가 곧바로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동북아 외교전선은 꽤 분주했다.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및 중·러 정상회담이 열렸고, 시 주석의 방북설도 흘러나왔다. 한·일 정상회담은 올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 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지 4개월 만인 5월 19일 이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고향 서

냈다. 다만 ‘죽창가’를 외치던 반일 감정에 대한 의구심이 깨끗이 해소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반면 이튿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러 정상회담은 공동선언이나 공동기자 회견 없이 끝난 미·중 정상회담과 달리 무려 47쪽에 이르는 선언문으로 반미 연대를 과시하며 한·미동맹과 일본의 재무장화를 싸잡아 비난했다.

잇단 동북아 정상 외교는 한반도 주변 정세가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증거다. G2의 패권 경쟁에 낀 한국으로선 외교·통상 대응에 추호의 빈틈도 용납할 수 없는 국면이다. 무엇보다 공급망 다각화와 초격차 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면서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다자주의 전략을 구사하는 전략적 선택이 바람직해 보인다. ☞

K-배터리 살아났다…ESS시장, 폭발적 성장

경제 포커스

업체들, ‘꿈의 배터리’ 전고체 개발 각축



조희곤

본회 편집위원
전 내외경제 논설위원

그동안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으로 깊은 조정을 겪었던 국내 배터리 산업(K-배터리)이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점차 회복되는 모양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최근 계속 일고 있는 리튬가격 상승도 배터리 산업 회복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의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 펀더멘털의 저평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기대만으로 올랐던 시기와 달리 이제는 실제 숫자가 찍히는 기업 위주로 ‘육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대형 배터리 3사의 하나인 삼성SDI의 경우 올들어 주가가 내달기 시작, 5월 중순 현재 연초 대비 약 170%나 상승했다. 이 기간 SK이노베이션(SK온 지분 100% 보유)과 LG에너지솔루션 주가도 각각 46%, 31% 올랐다

ESS 시장을 잡아라…연 평균 20% 고성장 지속

최근의 배터리 시장 최대의 화두는 단연 ESS다. ESS는 태양광, 풍력, 전기차 충전 등 거의 모든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화를 높여주는 핵심 인프라다. 글로벌 ESS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 2030년 설치 용량은 2024년 대비 약 2.5~3배 증가한 750GWh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세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해결을 위한 수요에서, AI 데이터센터의 폭발적 전력 수요와 그리드 안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데 힘입은 바 크다. 미국 정부의 국방물자생산법(DPA) 발동도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DPA에 직접적으로 ESS가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전력망 투자 확대와 지연됐던 프로젝트들의 조기 진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틸리티급 ESS 발주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으로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나온다.

삼성SDI는 3사 중 ESS성치가 실적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된 사례에 속한다. 삼성SDI의 올해 1분기 배터리 부문 매출액은 3조3544억 원, 영업손실은 1766억 원으로 집계됐다. 배터리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었고, 영업손실은 61.0% 줄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생산 능력과 매출 비중 확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올해 1분기 매출 6조5550억 원, 영업손실 2078억 원을

‘게임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다. 전고체는 배터리 구성 요소에 있어, 전해질을 기존 액체에서 고체로 바꿔 폭발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이 집약된 물체다. 이에 삼성SDI, 테슬라, LG에너지솔루션 등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은 사운을 걸고 전고체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SDI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명실상부한 전고체 대장주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삼성SDI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터산업 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요소다. 5월 중순 현재 유가는 브렌트유의 경우 배럴당 100달러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중동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 2월 중순의 70달러 선과 비교하면 무려 30%가량 올라 있다. 유가가 이처럼 급등하면 전기차(배터리)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전기차 캐즘 해소로 이어진다.

아직도 갈길 먼 K-배터리…중국에 밀려 고전

배터리 시장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한때 글로벌 선두권을 지키던 K-배터리는 근래 들어 중국에 밀려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1,187GWh로 전년 대비 31.7%가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분의 대부분을 중국기업이 흡수했다. 글로벌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은 39.2%(약 465GWh)로 1위를 지켰고, BYD는 16.4%로 2위를

전기차 ‘폭발 위험’ 원천 차단…내년 양산 목표

기록했다. 실적 자체는 적자였지만 ESS는 전략고객 신규 수주를 바탕으로 전사 매출의 20% 중반까지 비중이 확대됐다. SK온은 후발 주자이지만 국내외 레퍼런스를 빠르게 쌓고 있다. SK온은 제2차 중앙계약시장에서 전체 물량 565메가와트(MW) 중 284MW를 확보, 50.3%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1차 입찰에서 수주를 따내지 못했던 것과 달리 2차에서는 단숨에 최대 물량을 확보하며 국내 ESS 시장에서 존재감을 나타냈다.

업체들, ‘꿈의 배터리’ 전고체 개발 각축…내년 상용화 가시권

ESS 못지않게 올해 상반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섹터는 바로 전고체 배터리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기대감은 국내 배터리 시장 회복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기술적 한계(화재위험, 주행거리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다. 전고체 기술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닌,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바꿀

리튬가격 상승…양극재 업체 수익성 개선에 일조

배터리 주요 소재의 하나인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국내 배터리 소재업체들에 그동안의 ‘재고 악몽’이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리튬 가격 하락으로 판매 가격 하락과 재고평가 손실을 동시에 겪었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엘앤에프, LG화학 등 양극재 업체들은 리튬가격 반등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리튬가격은 지난 4월 1kg당 18.88달러에 머물던 것이 5월 중순 현재 24.5%나 오른 23.5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년 평균 대비 145%나 오른 가격이다. 리튬가격이 20달러대를 넘은 것은 2023년 11월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리튬가격 상승은 양극재 업체들엔 긍정적 변수로 작용한다. 양극재 판매가는 리튬, 니켈 등 핵심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리튬가격이 급락하며 판매가격이 낮아져 고가에 확보한 원재료 재고가 손실로 반영된 바 있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배

달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중국 업체에 밀려 성적이 초라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9.2%, SK온은 3.7%, 삼성SDI는 2.4%로 합산 15.3%에 그쳤다. 2023년(22.3%) 이후 2년 만에 7%p가 무너진 셈이다. 중국을 제외한 시장만 따도 봐도 국내 3사의 점유율은 28.4%로 1년 전보다 8.8%p 줄었다.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29.8% 급감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북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업체들로서는 미국의 수요 둔화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국내 2차전지 산업의 향후 전망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 회복 여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북미 전기차 시장 둔화와 과잉설비 부담이 발목을 잡겠지만,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수주 확대와 ESS·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는 새로운 버팀목이 될 수 있다.

ESS가 전기차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비중국 공급망 핵심 파트너로 자리잡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향후 시장의 판도를 가르게 될 것이다.☞

인류 동반자인가...혼란 지배자인가

로봇, 일상생활 보조역할서 정서적 영역 침투



전익식

본회 편집위원
전 서울신문 부국장

지난 5월 중순 서울 종로 거리에서 열린 불교 연등축제에 로봇스님이 등장해 도로를 가득 메운 시민과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회색 승복에 붉은색 가사를 걸친 4대의 로봇스님들은 두 발로 직각 보행을 하다가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는 등 인간스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했다.

그동안 우리는 공항의 안내 로봇이나 식당의 음식배달 로봇을 보았지만, 두 발과 두 팔, 머리와 몸통으로 인간의 사지를 갖춘 로봇의 행진은 처음이라서 관람객들은 탄성을 연발했다.

세계인이 스크린 속에서 바라보며 경악하던 공상과학(SF) 영화의 한 장면이 이제는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고 정교한 그림을 그리며, 복잡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순식간에 짜 내려가는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라는 인공지능(AI)의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다. 과거 단순한 계산이나 반복적인 업무를 보조하던 과학기술의 한 분야로만 여겨졌던 인공지능은 어느새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굳게 믿었던 지적·감성적 영역까지 침투했다.

앞으로 AI는 경제, 산업, 과학은 물론이고 예술, 법률, 의학, 국방, 심지어 종교 생활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전 방위에 걸쳐 막강한 위력을 떨칠 것이다. 인류는 이미 생활 속에서 AI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 서비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병원의 의료영상 판독 시스템 등은 초기적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사례들이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술의 발달로 글쓰기, 외국어 번역, 그림 제작, 음악 작곡까지 가능해지면서 인간 고유의 창작 영역마저 AI가 일부 대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산업 현장의 변화는 더욱 빠르다. 반도체와 자동차, 물류산업에서는 AI를 탑재한 로봇들이 생산라인에 투입되고 있으며, 단순 반복 업무는 점차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5월 16일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에서 조계사까지 진행된 2026 연등행렬에 로봇스님인 가비, 석자, 모희, 니사 스님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자동화되고 있다. 거대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노사분규 축소라는 장점이 있지만, 노동자들, 특히 20대 청년 세대에게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단순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계, 법률, 번역, 상담 등 전문직 영역까지 AI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사회 전체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결이라 여겨졌던 창작 영역이 대표적이다. AI가 순식간에 그럴듯한 소설을 쓰고, 인간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부르고 시 한 수를 똑딱 지어내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인류는 '인간의 창조성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회의감에 직면하게 된다.

쉽게 말해, 평생 작품을 그려온 화가가 단 몇 초 만에 그림을 만들어내

있다. 실제로 유명 정치인이 하지도 않은 가짜 연설 영상이 유포되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거나, 자녀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 낸 AI형 보이스피싱에 가족이 속아 넘어가는 범죄 사례들은 이 기술의 악용을 단편적으로 잘 보여준다.

아직은 인공지능이 현대인의 영혼과 인격을 완전히 지배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기계가 내리는 매끄럽고 편리한 결정에 만족하는데 길들여진다면, 많은 인간의 뇌는 주체적인 사고력과 성찰을 멈추게 될 것이다. 즉, 편안함을 누리는 대가로 '사고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이라는 권리를 기꺼이 양도하면, 기술에 의해 인간이 지배당하는 서막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AI 시대가 우리에게 위대한 동반자(得)가 될지, 아니면 파멸의 지배자(毒)가 될지는, 이 기술의 창안자인 인간이 어느 방향으로 키를 잡고 나아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또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도덕적 윤리관

인간의 존재가치 위협...인격 지배 '경고음' '딥페이크' 기술로 사회적 신뢰 관계도 붕괴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특히 과학과 의료 분야에서는 암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희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난치병 정복과 신약 개발에도 큰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다. 또 재난 상황에서는 위험지역 분석과 구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고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 돌봄 서비스와 복지 시스템에도 AI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빛이 밝으면 그 뒤편의 그림자는 어둡고 깊은 법이다. AI의 비약적인 발전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고 인격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경고음을 발송한다. 인간 영혼의 가장 고귀한 숨

는 AI 앞에서 깊은 허탈감을 느끼거나, 한 사람의 사활이 걸린 재판에서 법조인이 피고인의 눈물어린 사정이나 반성의 기미를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와 확률만으로 기계적인 유죄 판결을 내리는 상황은 AI가 가져올 수 있는 차가운 단면이다. 또 국방 분야에 투입된 AI가 인간의 판단없이 대량살상 무기를 작동하는 경우엔 국제 논쟁이 벌어질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성직자를 대신해 인공지능이 설교와 강론을 작성하고 가상 공간에서 기도를 올리는 풍경은 종교적 본질과 영적 교감의 가치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AI가 인간의 감성과 도덕적 진실을 외면하는 형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목소리와 얼굴을 완벽하게 흉내내는 '딥페이크' 기술은 이미 여론을 호도하고 정교한 가짜 뉴스를 생산하여 사회적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고

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따라잡지 못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맞을 수도 있다.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창의성과 공감 능력, 도덕적 책임감까지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래 사회의 중심도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고 인공지능은 인간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 이후 가장 거대한 문명의 물결을 맞고 있다. 새 시대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AI가 인류의 축복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인지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삶을 풍요롭게 돕는 도구로 남아야지 AI시대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되어야 한다.☞

누구를 위한 두 개의 국가론인가?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 헌법 제3조와 배치



문관현
본지 편집위원
연합뉴스 부장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발간한 첫 통일백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인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한이 먼저 꺼내든 두 국가론 카드를 우리 정부마저 수용해 분단 고착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일부는 최근 공개한 통일백서에서 대북정책에 대해 “남북한 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이 느끼는 불신과 위협을 완화하고 적대를 평화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규정했다. 정부의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두 개의 한국(Two Korea)’ 표현이 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이후 ‘평화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이 명문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며 헌법 배치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북한이 2023년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4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후 54년 동안 유지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곡점이 생겨났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는 것은 상대방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는 한 반도와 부속도서라는 헌법 제3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통해 발표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대국민 약속을 백지화하는 조치로도 볼 수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 규정된 평화통일을 위한 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거 남북 정상회담의 주체이자 교류협력 사업의 총괄 사령탑을 수행한 대통령 존재를 부인하겠다는 것이다.

지구상 ‘마지막 화약고’로 불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평화적 두 국가론’ 명문화

북한 헌법 서문 ‘조국통일’ ‘민족대단결’ 개념 증발

정하면서 지난 3월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북한의 영역이 “북쪽으로 중국, 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다”는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개념을 삭제해 두 국가론을 공식화했다.

북한은 이전에 우리 정부를 가리켜 ‘남조선’ 또는 ‘괴뢰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대체했다. 남한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기존의 개념을 통째로 드러냈다. 북한의 헌법 서문에서 ‘조국 통일’과 ‘민족대단결’ 개념이 증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는 표현들을 삭제하고 유헌통치의 전통마저 거부했다. 김정은 정권이 권력세습의 정통성으로 내세웠던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역사성을 지우고 1972년

한반도에서 남북통일 위협은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인이 열망하는 역사적 과제로 남았다. 천만 이산가족이 상봉의 그날을 고대하고 분단의 현실은 여전히 많은 고통을 강요한다. 두 개의 국가론을 공식화하려는 설익은 발상을 중단하고 먼저 국민 여론부터 살펴보기를 제안한다. ㉠

정동영장관 ‘기밀누설’ 파장 깊다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한미양국 ‘온도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른바 ‘기밀누설’ 파장이 깊어지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소재지로 그동안 한 미 양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평북 구성지구’를 지목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자신들이 수집해 한국에 제공한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보고 이후 대북 정보

공유를 상당한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자신들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북한의 무기급 고농축 관련 정보를 포함해 북한의 핵개발 동향이 우리 측과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정찰위성이 포착한 북한 핵 시설 정보와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 등에 관한 정보도 제한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4월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정

보 공유 제한에 대해 “크게 제한된 상황이 많지 않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지난 5월 10일 방미, 피트 헤그 세스 등을 만났을 때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 전정부가 이것을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음에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미국의 대한 정보 공유 제한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 미 현안 중 가장 뜨거운 이슈인 전시작전권 문제와의 관련성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을 계기로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우리가 갖춰야 할 감시, 정찰 및 정보 수집능력의 수준을 진지하게 평가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1~5단계로 나뉘어 있는 대북정보 감시 태세인 ‘워치콘(Watchcon)’은 한 미연합사령관이 상·하향을 결정한다. 현재는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워치콘을 격상하면, 주일미군이나 미·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의 감시·정찰자산과 미국 측 위성이 추가 투입돼 북한 동향을 정밀 탐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워치콘을 격상할 경우, 미국 측이 기존처럼 일사불란하게 지원해 주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

문화 예술 기관장은 ‘정권 전리품’ 아니다

친정권 정치연예인 등용에 문화예술 단체 규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예술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가 친 이재명 대통령과 친 여권 폴리테이너(정치연예인)들만 화이트 리스트에 올랐다. 최취영 포털 기업가 출신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2022년부터 이재명을 지지하며 홍보한 친 이재명 정치성향의 모델 출신 배우 장동직을 국립정동극장 이사장에,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유세에 합류한 개그맨 서승만을 국립정동극장 대표에 임명했다. 이들 세 사람의 인사도 놀랄만한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친 여권지지 글을 SNS에 꾸준히 띄운 음식평론가 황교익을 임명하고 장충동 국립극장장에 코미디언 김미화 내정설까지 나돌아 문화예술계는 상식 파괴 수준의 인사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야권 인사뿐만 아니라(문화예술계에서 야권 인사는 소수이지만) 친 여권성향 문화연대를 비롯해 전 분야 현장예술인, 예술행정연구가들도 인사 참사라고 규탄하고 서명운동까지 전개했다. 문화예술계의 비난이 들끓는 소란 속에서 황교익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의 취임 일성은 “이 소란으로 연구원 홍보에 역할을 했다”였다. 상식을 파괴한 인사에 상식을 초월한 취임사였다. 민주화 이후의 시대 흐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탄핵 이후의 시대정신에 역행하여 선출된 권력이면 모든 것을 임의대로 해도 된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이 임명권자나 자리를 차지한자나 똑같이 보인다.

박근혜 정부 때로 시대를 거슬러 되돌려 본다. 2014년 8월 박근혜 정부는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 재미 원로코미디언 자니윤을 임명했다. 자니윤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 재외국민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도왔다. 처음엔 사장에 임명하려 했지만, 당시 문체부 장관이 강력히 반대해 감사로 등급이 낮아졌다. 연봉은 9,000만원 수준이었다. 자니윤 외에도 당시 청와대에서 계속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자 문체부 차관이 일관되게 거부해 청와대와 충돌했고, 결국 자리를 떠났다.

이런 사실은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다. 그 때만 해도 이런 강직한 고위관리가 존재했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NO’라는 말을 하는 고위관리를 아직 보지 못했다. 모두 에스맨 합창단이다. 김대중 정부 때 일



포털 기업가 출신인 최취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친 이재명성향으로 국립정동극장 이사장 자리에 오른 모델출신 배우 장동직.



작년 대선에서 이재명후보 유세에 합류했던 개그맨 서승만.



음식평론가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임명된 황교익.

울러 그가 적격자인지를.

한국에선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7,000곳 정도라고 한다. 공모형식을 거치기는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정권 전리품으로 행사된다. 민주당 정권도 다른 정권과 마찬가지로.

그런데도 상대가 하면 땀비린하고 자신들이 하면 방어벽을 친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중적인 행태다. 세월이 지나도 민주당의 오만과 뻔뻔함과 내로남불은 그대로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윤석열 정부 대통령 기밀비를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삭감해놓고 자신들이 집권하자 전액 부활시켰다.

서승만 정동극장 대표와 황교익 문화관광연구원 원장의 경우 과거 경솔한 처신과 과도한 정치편향이 정무기관이 아니라 문화예술과 관광 관련 기관장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스럽다. 문화예술기관은 아름다움을 창조 공연하여 국민에게 예술적 향기와 함께 감동을 주는 곳이다. 특히 정동극장은 한국 최초의 근대극장인 원각사의 맥을 잇는 예술극장이다.

서 대표가 미학적 가치가 담긴 품격있는 공연을 만들어 정동극장의 위상을 새롭게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중성을 전혀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코믹 취향의 대중공연작을 정동극장에 올릴까 우려스럽다. 코믹물은 최초 예술 근대극

과거 자니윤 관광공사 감사 반대 ‘모르쇠’ ‘낙하산’ 인사에 친여 문화연대도 비난

화 하나 더 소개한다. 박주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대중 대통령의 고위인사 임명을 사직원을 제출하면서까지 끈질기게 반대해 결국 대통령도 손을 들었다.

박근혜 정부 때 자니윤 한국관광공사 감사 임명에 당시 이재명 성남 시장은 “할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을 감사로 임명해 월세 9,000만원을 주느냐, 낙하산도 좀 그럴듯한 사람으로 해야지 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국정감사에서 자니윤

관광공사 감사 임명에 대해 ‘코미디’ ‘낙하산’ 심지어는 ‘국정농단’이라고 난리친 것도 부족해 나이를 거론하며 인신공격까지 했다. 화가 난 자니윤이 민주당 의원에게 푸시업(팔굽히기) 겨루기 하지는 말까지 했다. 이런 민주당이 황교익에 대해서는 ‘음식문화와 관광산업 전문가’라고 옹호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묻는다. 문화관광연구원 원장 할 사람이 그리 없어서 국민 월세로 연봉 1억7,000만원을 주는 자리에 황교익을 임명했는지. 아

장의 맥을 잇는 정동극장이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 공연하면 되지 않을까.

부적격자라고 지적받은 문화예술 기관장들이 순수한 예술역량 대신 자신의 재능을 정권의 선택에 고마움으로 충성의 유능함을 증명하려 한다면 이는 예술행위가 아니라 정치와 문화 예술의 연대일 뿐이다. ☐

김 화(본회 이사 · 편집위원 ·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한국축구, 2연속 16강진출 '킵오프'

스포츠 코너

북중미 FIFA 월드컵 6월 11일개막



최규섭

(사)한국체육언론인회
사무총장
『스포츠 저널 코리아』
편집인 & 편집위원장

'4+α.'

2026 북중미 3개국(미국·캐나다·멕시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향해에 나선 '홍명보호'의 염원이자 지상 과제다. 곧, 조별 라운드 관문을 뚫고 결선 라운드에 올라가야 달을 수 있는 희망봉이다. "2연속 결선 라운드 진출을 반드시 해내겠다."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던진 결연한 출사표에선 비장미(悲壯美)까지 엿보였다.

내우에 시달리는 한국 축구 미래의 운명이 걸린 2026 월드컵이 6월 11일(이하 현지 일자) 대망의 막을 올린다.

7월 19일까지 39일간(일수 기준) 펼쳐질 세계 축구 최대 제전에 도전장을 던진 한국 국가대표팀은 지난 5월 18일 격전지로 떠났다. 1차 관문인 조별 라운드가 벌어질 멕시코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시차 및 고지대 적응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갈 첫걸음을 내딛기 위한 출정이다.

그 이틀 전인 16일, 홍 감독은 "1차 목표는 32강 진출"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신과 함께 2026 월드컵을 헤쳐나갈 최종 태극 전사 26명을 발표하는 자리(서울 종로구 KT 온마당)에서, 홍 감독은 12년 전 아픔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내비쳤다. '태극호'를 이끌고 처음 본선에 도전장을 던진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홍 감독은 조별 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표1 참조)

홍 감독의 바람이 이뤄질 경우, 한



홍명보 한국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FIFA 월드컵에서 결선 라운드 진출을 이루기 위한 전략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국은 최소 4경기를 치른다. 조별 라운드 3경기과 결선 라운드 첫판인 32강전을 엮어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연속 16강 고지를 밟는다면 5경기를 치른다.

FIFA가 이번 대회부터 종전 32강 체제에서 48강 체제로 월드컵 본선 경쟁 형식을 변경함으로써, 결선 라운드는 32강전부터 시작해 16강→8강→4강→결승전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12그룹으로 나뉘어 펼쳐지는 1차 라운드 각조 1·2위 팀을 비롯해 각조 3위 12개 팀 중 상위 8개 팀이 32강전에 올라간다.

아시아 무대에서, 한국은 월드컵 본선 및 연속 진출 횟수에서만은 '절대 강호'라 할 만하다. 최다(12회) 진출 타이틀은 우리나라 몫이다. '영원한 맞수'로서 2위에 자리한 일본(8회)을 멀찍이 따돌린 채 선두를 내달리고 있다. 연속 진출 부문에선, 더 대단한 질주를 뽐낸다. 세계 정상권이다. 11회(1986 멕시코~2026 북중미 3개

국)를 기록, 브라질(23회·1930 우루과이~)→독일(19회·1954 스위스)→이탈리아(14회·1962 칠레~2014 브라질), 아르헨티나(14회·1974 서독~)→스페인(13회·1978 아르헨티나~)에 이어 6위다. 물론, 아시아 최고다.

이 같은 기록을 바탕으로 한 전통과 관록에다 조 편성, 대진표, 경기 장소 등을 감안하면(표 2 참조), 결선 라운드 진출은 희망적이다.

한국은 공통 개최국의 하나인 멕시코를 비롯해 체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A그룹에 짜였다. 3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FIFA 랭킹(4월 1일 기준)이 앞서는 나라는 멕시코(15위) 뿐이다. 25위인 한국이 체코(41위)와 남아공(60위)을 압도한다.

경기 일정도 잘 짜였다. 체코(6월 11일)→멕시코(6월 18일)→남아공(6월 23일) 순으로 무난하다고 할 만하다. 유럽축구연맹(UEFA) 플레이오프 관문을 넘어 가까스로 본선 마당에 뛰어든 체코와 첫판을, 1승의 제물로 여기는 남아공과 마지막 한판을 각각 치러 페이스 조절이 순탄할 듯싶다.

세 경기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는 점도 플러스 요인으로 간주된다. 고지대인 점은 신경 써야 하겠지만, 3개국에서 벌어지는 이번 월드컵 조별 라운드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러 이동 거리가 짧은 점은 분명 반사이익을 누릴 요소로 꼽힌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홍명보 감독 체제의 태극호가 월드컵 격랑을 헤치고 희망봉에 도달할지에, 온 국민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표 1. 대한민국 역대 FIFA 월드컵 본선 성적

※ ()안은 감독.

성적		대회
결선 라운드 진출	4강	2002 한·일(거스 히딩크)
	16강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허정무), 2022 카타르(파울루 벤투)
조별 라운드 탈락		1954 스위스(김용식), 1986 멕시코(김정남), 1990 이탈리아(이회택), 1994 미국(김호), 1998 프랑스(차범근→김평석), 2006 독일(덕아드보카트), 2014 브라질(홍명보), 2018 러시아(신태용)

표 2. 대한민국 조별(A) 라운드 편성 및 경기 일정

순번	일시(한국 시각)	장소	대진	
			상대국	FIFA 랭킹
1	6월 11일 오후 8시(12일 오전 11시)	과달라하라	체코	41위
2	6월 18일 오후 7시(19일 오전 10시)	과달라하라	멕시코	15위
3	6월 23일 오후 7시(24일 오전 10시)	몬테레이	남아프리카공화국	60위

※ FIFA 랭킹은 4월 1일 기준. 한국 25위.

남자 마라톤 '2시간 벽' 깬다

4월 런던대회 케냐 사웨 1시간 59분 대 진입

마라톤에서 인간이 '신의 영역'에 들어섰다. 인간 한계로 여겨지던 '마의 벽' 2시간대가 마침내 깨졌다. 그것도 한꺼번에 2명이 새로운 미지의 세계인 1시간 59분대에 발을 내디뎠다.

사바스티안 사웨(케냐)와 요미프 케첼차(에티오피아)가 마라톤 역사의 신기원을 열었다. 국제육상연맹이 마라톤 코스 거리(42.195km)를 표준화한 1921년 이후 105년 만에 도저히 넘어서 수 없을 듯 싶었던 '2시간 벽'

을 돌파한 획기적 대사건이다.

그 무대는 2026 TCS 런던 마라톤이었다. 지난 4월 26일(이하 현지 일자) 열린 이 대회에서, 사웨는 1시간 59분 30초로 우승하며 1시간대에 진입한 '최초 인류'의 영예를 안는 감격을 누렸다. 11초 뒤에 들어온(1시간 59분 41초) 케첼차는 '두 번째 인류'가 되며 신의 세계에 들어서는 기쁨을 함께 만끽했다.

사웨는 종전 세계 최고 기록을 단숨에 1분 5초씩이나 능가하는 신기록

을 세웠다. 2년 6개월여 기록 타이틀을 지켰던 켈빈 킵툼(케냐·2시간 0분 35초)의 아성을 무너뜨리며 자신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 케첼차도 54초를 앞당기며 킵툼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데 한몫했다.

이로써, 이제 세계 마라톤계의 초점은 2시간대에서 언제 1시간 59분대 돌파가 이뤄질지예로 옮겨졌다. 기록 단축 추세가 갈수록 가파른 데다 시일 또한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967년 후쿠오카(福岡) 마라톤에서, 데릭 클레이튼(호주)이 처음 2시간 10분 벽을 깨트린 뒤 인간은 평균적으로 6년에 1분씩 기록을 단축해 왔다.

21세기 기록 돌파 추이를 보면, 2시간 3분대(2시간 3분 59초·2008년·하일레 게브르셀라시예)에서 2시간 2분대(2시간 2분 57초·2014년·데니스 키메토)에 6년, 2시간 1분대(2시간 1분 39초·2018년·엘리우드 킵초게)에 4년, 2시간 0분대(2시간 0분 35초·2023년·켈빈 킵툼)에 5년, 이번 1시간 59분대에 3년이 소요됐다.

최근 18년 사이에 4분을 단축하는데 평균적으로 4.5년밖에 걸리지 않았을 만큼 빠른 기록 경신이 이뤄졌다. 오는 9월 제52회 베를린 마라톤 대회 출전을 공식 발표한 사웨가 또다시 괴력을 떨치며 전인미답의 새 경지를 개척할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은다.☞

국민 하나되는 ‘늑구얌이’ 정치가 아쉽다

“인생은 나그네길…” 1965년 최희준의 ‘하숙생’ 메시지

신대남

칼럼



‘그 시절 그 노래’

〈15〉

지난 4월의 일이다. 대전의 복합 테마공원 오월드(O-World)의 사파리에서 ‘늑구’라는 두살짜리 늑대한 마리가 울타리 밑에 땅굴을 파고 탈출을 해서 생포되기까지 9일 동안을 많은 국민이 한마음으로 어린 ‘늑구’의 무사 안녕을 바랐던 세칭, ‘늑구얌이’를 했다. 처음엔 초등학교 인근에 나타나 위협을 염려하기도 했으나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고 말썽을 부리지 않는 착한 늑대여서 국민들이 오히려 ‘늑구’의 안녕과 건강을 염려했다. ‘늑구’는 다행히 멀리 가지 않고 사파리 인근의 야산을 돌아다녀 체력 소모가 적었고 개구리 등 작은 동물이나 낚시꾼이 버린 물고기를 먹어 위장에서 2cm의 낚시바늘이 발견돼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사파리로 돌아갔다. 빵의 도시 대전에선 ‘늑구 빵’을 만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늑구’가 탈출한 오월드는 늑대를 작은 우리에 가두지 않고 3만 3,000㎡(약 1만평)의 넓은 면적에 방사한 사파리로 20여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 매끼 고기를 주고 건강까지 살피는데 ‘늑구’가 왜 탈출을 했는지, 울타리 안 그들만의 리그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호기심이 많아 ‘뽕’만으로는 살지 못하고 울타리 밖 인간 세상이 궁금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울타리 밖 인간 세상도 평온한 곳만은 아니다. 세계는 지금, 도처에서 장난감 드론까지도 살상 무기로 변조한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이 치열하고, 자고 새면 출렁이는 기름값으로 경제난이 심각하고, 나라 안은 갈등의 정치, 사회가 6·3 선거전으로 더욱 가열된 양상이다.

하지만, 필자가 보다 더 궁금한 것은 어린 늑대한 마리의 일탈이 왜 그렇게 모든 매스컴의 관심거리 뉴스가 되고 양분된 갈등의 우리 사회가 한마음 하나로 늑대 걱정을 했을까 하는 ‘늑구얌이’ 현상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드론과 미사일이 장난감처럼 하늘을 나는 중동전과 타협 없는 갈등으로 양분된 국내 정치, 사회에 자신도 모를 피로감이 쌓인 국민들의 카타르시스로 ‘늑구’가 등장했던 게 아닌지 하는 씁쓸한 생각을 했다. ‘늑구’는 다행히 밤낮 없이 찾아다닌 구조대원분들이 마취총으로 생포해 가슴을 쓸어내렸다.

1965년 최희준의 ‘하숙생’이 사회의 공감을 얻어 국민의 애창가요로 한 시대를 진동시켰다. 인생의 메시지가 최희준의 목소리에 실려 가슴에 남은 추억의 노래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



구수한 목소리로 인생을 노래했던 최희준. 코미디언 구봉서가 ‘찐빵’이란 애칭으로 불러 닉네임이 됐다.

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 KBS 라디오 드라마 작가 김석야가 자신의 드라마 주제가로 가사를 쓰고 MBC 악단장 김호길이 작곡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한 울타리 안의 하숙집에서 빚어내는 희로애락을 담은 드라마로 노래와 함께 히트해서 1966년 정진우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다. 신성일·김지미가 주연하고 최남현·김희갑·전양자 등이 출연해 74만 여명의 관객을 모은 흥행작이다.

최희준은 1935년 서울에서 나서 경북고와 서울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신입생 환영식에서 냇강골의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KBS 김강섭 악단장이 미 8군 쇼에 추천해 팝송 가수로 활동하다 1960년 손석우 작사, 작곡의 ‘우리 애인 올드 미스’

‘늑구얌이’ 현상은 갈등으로 피곤한 사회의 카타르시스 천안시 천안 삼거리 공원에 ‘하숙생’의 노래비가 있다

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본명은 최성준인데 손석우가 웃고 살라고 기쁜 희자를 넣어 최희준崔喜準으로 예명을 지었다. 그리고 별명은 ‘찐빵’이다. 1m 60cm의 키에 TV 출연을 할 때면 조명으로 열을 받은 스포츠형 머리에서 ‘찐빵’처럼 김이 모락모락 난다고 해서 코미디언 구봉서가 ‘찐빵’이라고 부른 게 애칭이 됐다. 그 무렵 미8군 쇼에서 활동하던 위키리, 박형준, 유주용이 가요계로 나와 솔로 활동을 하며 필요에 따라 최희준과 함께 포클로버스라는 4인조 그룹 활동을 병행했다. 마침, 고대 법대 출신의 김상희도 이 무렵에 데뷔해서 가요계에 ‘학사 가수’가 탄생했다고 뉴스가 되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한명숙·패티김·현미·이금희·김계자와 한 시대를 휘저은 펄스스터즈, 신중현과 엽전들 등 미 8군 쇼의 가수들이 대거 가요계로 진출하고, 블루벨즈 자니 브라더스 봉봉 4중창단 등의 그룹이 트로트 일색의 가요계에 팝 스타일의 새로운 가요 붐을 일으켜 1960년대가 한국 가요사의 대변혁기가 됐다. 최희준은 대표곡 ‘하숙생’을 비롯해 ‘맨발의 청춘’ ‘월급봉투’ ‘진고개 신사’ ‘빛과 그림자’ ‘팔도



‘하숙생’은 라디오 드라마와 1966년 정진우 감독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신성일과 김지미가 주연.

강산’ ‘길’ 등의 히트곡으로 1960~70년대 한국 가요사의 한 주인공이 됐다. 다정한 인성이었다. 필자에게 부탁하진 당부와 장난스레 아이들 자랑을 했던 추억이 있다. “집안의 길흥사가 있을 때 꼭 제게 연락주세요. 아들놈이 크니까 징그러워요. 저보다 더 커요” 잘 자란 아이들을 흐뭇해하던 평범한 아버지

였다.

최희준은 또 가수 출신의 첫 국회의원이었다. 1995년 새 정치국민회의 발기인으로 입당해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양시 동안구 갑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리고 2018년 8월 24일 82세로 ‘하숙생’의 나그네 인생을 마감했다. “인생은 별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별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하숙생’의 2절 가사다. 충남 천안시 천안 삼거리 공원에 ‘하숙생’의 노래비가 있다.

‘늑구얌이’ 현상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 대다수는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감사하고 하나가 되는 선량한 사람들이다.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타협으로 하나가 되는 정치, 정치인이 아쉽다. 최희준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하숙생”으로 왔다가는 별거숭이”라고 노래했다. 가슴에 닿는 메시지다. ☐

신대남(본화이사·전 한국일보사 일간스포츠편집국장 상무이사)

우리말 오랑캐는 두만강 여진족 ‘우랑카이’

중국 춘추전국시대, 주변 민족들 오랑캐로 멸시

황원갑의 史談史話



황원갑
본회 회우
소설가·역사연구가

오랑캐란 미개한 야만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중국에서는 본래 한족(漢族)이 살던 황하 중상류 지역인 중원(中原)의 사방에 살던 여러 민족을 보고 사이(四夷), 즉 사방의 오랑캐 - 동이(東夷)·서융(西戎)·남만(南蠻)·북적(北狄)이라고 불렀다.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은 동이에 속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한 훈족(흉노족)은 서융과 북적이었다.

그런데 우리말 오랑캐는 원래 두만강 연안에 살던 여진족의 일족 우랑카이(兀良哈)를 부른 것이 오랑캐가 된 것이다. 그것이 더 나아가 훈족·거란족·말갈족·몽골족·왜인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확대된 것이다. 왕조 말기에는 처음 보는 서양사람들도 양이(洋夷)라고 불렀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동이라고 부르던 고구려도 한나라·수나라·당나라 등과 맞서 싸울 때는 중국을 오랑캐라고 불렀다. 근래에도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벌어진 6·25전쟁 때 우리는 북한을 돕기 위해 한국전쟁에 뛰어든 중국군을 ‘중공 오랑캐’라고 불렀다.

역사를 옛날로 돌이키면 중국은 춘추전국시대부터 주변 민족들을 오랑캐라 부르며 멸시하고 천대했다. 동이족에 우리 한민족을 비롯하여 말갈·몽골·거란·왜 등이 들어가고, 서융과 북적에 훈(흉노)족이 대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도 오랑캐라고 천대하고 멸시했는데, 그 오랑캐인 한민족이 ‘소중화(小中華)’라는 사대주의의 ‘새끼 중국인’이 되어 같은 오랑캐인 훈·말갈·몽골·거란·왜등을 보고 오랑캐라고 불렀던 것이다.

상고사를 연구해보니 훈·말갈·거란·몽골 등이 모두 고조선에서 갈라져 나간 천손족(天孫族)이었다. 왜는 고조선 멸망 이후 부여와 백제, 그리고 가야의 유민이 일본열도로 건너



오랑캐는 두만강 연변과 그 북쪽에 살던 여진족 가운데 한 부족인 ‘우랑카이’에서 유래했다.

가서 개척하고 세운 나라다. 모두 우리 한민족의 사촌뻘이었다.

사촌의 얼굴에 대고 침을 뱉으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조금이라도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훈족(흉노족) 하면 곧 ‘오랑캐’라는 생각이 떠오

모두 우리 고대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유민으로 우리 한민족 천손족의 사촌뻘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가리켜 중국인들이 부른 비칭이 동이족이었다.

같은 동이족인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멸시한 왜국도 동북방의 고대 선

렇게 상식 이하다! 우리 조상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저 중국인들이 붙여준 이름에 감지덕지하여 예니, 맥이니, 예맥이니 하고 좋아라 불렀던 것이다! 참으로 황당무계한 작태다!

훈족을 비롯하여 여진족·거란족 등은 이미 중화제국이라는 역사의 용광로 속에 휩쓸려 녹아버렸다. 중국은 민족을 먹는 거대한 용광로다.

이런 중국이 지금도 노리는 것이 한민족의 중국화다. 고구려와 발해사에 이어 단군왕검의 고조선사까지 왜곡·날조·탈취하려 들고 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오랑캐라고 멸시하고 천대하던 동이족도 이제 와서는 모두 중국인의 조상이라고 둔갑시킨 것

훈·말갈·거란 등 고조선서 갈라져 간 천손족

중국, 한반도 영토화 야욕...역사관 확립 시급

를 것이다. 이는 여진족이 만주족으로 이름을 바꿔 청나라를 세우기 전까지 여진족도 오랑캐라고 불렀고, 여진족의 전신인 말갈족이 금나라를 세울 때에도 오랑캐라고 불렀다.

원나라를 세운 몽골족도 오랑캐라고 불렀다. 또 요나라를 세운 거란족도 오랑캐라고 불렀다. 여진족의 전신은 고조선 이후 부여와 고구려와 발해를 구성한 말갈족이었다. 말갈족은 고조선을 이은 부여의 오가(五加), 중마가(馬加)에서 비롯됐다는 연구도 있다.

중국은 고대부터 중국 북방에서 끊임없이 침공해온 훈족·거란족·몽골족·돌궐족·말갈족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을 두고 잔인한 오랑캐라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대를 이어 내려온 공포심도 한몫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은 이들을 중국 한족의 시각에 장단맞춰 오랑캐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민족인 아이누족을 보고 동이족이라고 불렀던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동이족이 동이족을 보고 오랑캐라고 멸시한 것이다.

훈족은 고조선에서 떨어져 나가 고조선의 서쪽에 자리 잡았는데, 중국은 여러 차례침공했지만 고조선과는 아무런 충돌도 없이 사이좋게 지냈다. 훈(薰)의 본래 뜻은 ‘향기롭다’는 의미였는데 중국 고대의 사가들이 ‘더러운 노예’니 ‘흉악한 노예’니 하는 뜻의 훈노라고 표기한 것이다.

세상 어느 민족이 자기네를 가리켜 더러운 노예라는 이름을 붙인단 말인가! 다른 민족을 가리켜서 그렇게 부르는 나라도 없다. 오직 중국의 사가(史家)들만 대대로 그런 식으로 주변 민족을 비하하고 멸시하는 비학문적, 비학자적 망발을 자행한 것이다.

우리 한민족 선조의 일부를 가리키는 예(濊)니 맥(貊)이니 하는 글자도 알고 보면 ‘오물 묻은 더러운 짐승’이란 뜻이다.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이 이

이다.

중국은 이제는 동이니 서융이니 하는 말도, 오랑캐라는 말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오랑캐라고 멸시 천대하던 민족을 자기네 조상으로 바꿨으니 이제 오랑캐라는 소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인들의 오랑캐관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조 오랑캐’는 바로 중국 한족(漢族)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역사전쟁에서 밀리면 세계지도에서 영영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은 1300년 전 나당전쟁(羅唐戰爭)에서 신라에게 패배한 뒤에도 지금까지 한반도의 영토화 야욕을 잊지 않고 있다.

한반도를 중국의 일개 성이나 자치구로 만들 흉악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모두가 우리역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역사를 지키는 민족이라야 살아 남는다. ☐

특파원 수첩 런던 ⑭

오페라 팬들 ‘꿈의 무대’ 글라인트 본 축제 광활한 잔디정원에 모차르트 선율

**박창래**

전 동아일보 런던특파원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대우
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

영국의 음악 활동은 전국 어디를 가나 활발하기 그지없다. 길고도 지루했던 겨울이 지나고 수선화가 피어나기 시작하면 전국 곳곳에서 음악제가 가지개를 켜다. 이들 축제는 음악의 장르에 따라 각기 특성을 지닌다. 그 많은 축제 가운데 오페라 팬들이 꿈에도 그리는 무대, 세계 최고의 음악 축제가 있다. 글라인트본 오페라 페스티벌.

오페라가 아니면 별로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을 아주 한적하기 이를 데 없는 작은 마을, 글라인트본은 런던에서 남쪽으로 50마일, 자동차로도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위치에 있다. 런던 시내를 벗어나 여기까지 달리노라면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영국 고유의 시골 풍경이 평화롭고 아름답기 이를 데 없다. 막상 극장에 도착하면 광활하게 전개되는 잔디와 잘 가꾸어진 정원이 시야에 확 트인다. 이렇게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서 공연되는 오페라가 세계적인 성가를 올리고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은 몇가지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첫째 매력은 잘 가꾸어진 정원 속에서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염한 자태를 뽐내는 기화요초(琪花瑤草)들의 꽃향기 그윽하고, 이를 둘러싼 울창한 나무가 싱그럽다. 한마디로 상쾌하다. 런던의 로열 오페라나 밀라노의 라 스칼라, 빈의 국립 오페라 극장이 아무리 유명하다하나 그것은 시장 한가운데 아니면 도심 변화가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에 비해 이곳 오페라 극장은 전원, 어디를 둘러봐도 잘 다듬어진 초원뿐이다. 정원이 무려 14만 7,000평. 축구장 68개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다. 경계 밖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야산에는 풀을 뜯는 양떼와 젖소들이 한가롭다. 목가적이란 말은 바로 이런 풍광을 위해 생겨난 듯.

이곳 오페라의 또 하나 특징은 관람객은 누구나 정장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장이라 함은 우리가 흔히 입는 신사복에 넥타이를 매는 정도가 아니다. 블랙 타이라 일컬어지는 영국식 정장을 의미한다. 남자는 턱시도, 여성은 화려한 이브닝드레스가 드레스 코드. 이 때문에 런던 빅토리아역에서 오후 3~4시에 떠나는 루이스행 기차 속에는 한 여름에도 정장을 한 선남선녀를 수 없이 발견하게 된다.

이곳 오페라의 세 번째 특징은 중간 휴식시간이 90분에 이를 정도로 길다는 것. 이 시간을 이용하여 저녁식사를 겸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런던 시내에서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살짝 이른 시간 6시에 개막하는 대신 오랫동안의 중간 휴게시간을 허용, 잔디 위에서 식사를 즐기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



글라인트 본 오페라하우스

비롯되었다. 16세기에 지어진 글라인트본의 성주(城主) 존 크리스티는 명문 이튼과 케임브리지 출신의 최고 지성인. 그러나 그는 자기 전공보다는 음악을 좋아하는 나머지 조상으로부

번거로움을 원치 않는 관객들을 위한 식당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은 또 스타 탄생의 요람, 신인들의 등용문으로도 명성이 높다. 재능 있는 신인을 발굴, 기숙사에서 혹독한 연습을 통해 보석으로 키운다.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 등 전설적인 성악가들도

무명시절 이곳을 거쳐 스타가 되었다. 특히 파바로티가 어린시절 (1955년) 아버지와 함께 합창단의 일원으로 이 축제에 참여, 우승을 차지했던 것은 전설로 남아 있다. 그는 훗날 세계적

화려한 드레스-턱시도 차림 ‘사교의 場’ ‘스타탄생 요람’ 테너 파바로티 데뷔

객들은 미리 푸짐한 저녁식사에 포도주, 샴페인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잔디 위에 삼삼오오 둘러앉아 여유를 만끽한다. 부유한 관객들은 자신의 개인 버틀러(청지기)나 전문 케이터링 팀을 대동, 공연 전에 잔디밭에 은제 쉼대, 린넨 식탁보, 크리스털 와인 잔, 그리고 최고급 빈티지 샴페인을 즐긴다. 현장에서 랍스터, 캐비어, 훈제 연어 등 화려한 코스 요리가 서빙되며 단순한 음악 축제를 넘어 영국의 상류사회와 전 세계 부유층이 뽐내는 ‘사교의 장’으로 변모한다. 마치 영화 속의 한 세팅과도 같은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곳 오페라에 가는 것은 상류사회의 하나의 신분상의 상징(스테이터스 심벌)으로 여겨지고 있다. 계급의식이 철저한 영국사회에서 상류계층들이 스스로 상류계층임을 확인하면서 즐기는 제도라고나 할까, 관습이라고 할까? 글라인트본 오페라는 상류사회임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인스티튜션이다.

1934년 처음으로 시작된 이곳 오페라는 한 부호 오페라광의 정열에서

터 물려받은 성(城)을 극장으로 개조, 세계 최고의 오페라를 공연하는 꿈을 키워왔다. 이러한 꿈은 미모의 오페라 가수 오드리 마일드메이와의 결혼으로 결실을 보게 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최적의 장소에서 최고의 작품을 창조해 낸다는 것이 그의 신념. 부호들의 후원 덕분에 상업적 흥행에 연연하지 않고 실험적이고 수준 높은 공연을 담보한다. 명성이 높아지자 멤버가 되기 위해 대기 중인 명단은 수년 치에 달하며 이 멤버십 자체가 유럽 상류사회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신분증이다. 모든 관객들에게 고품격 드레스 코드를 요구하는 것도 출연자에 대한 예우이며 축제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문화이다.

나는 특파원 재임 중 로열 오페라하우스 단장, 폴 핀리 내외 주선으로 동아일보 김상만 명예회장을 모시고 두 차례 라 트라비아타와 카르멘 등을 감상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때마다 헬리콥터를 타고 일가족이 도시락을 가지고 내리는 장면을 여러차례 목격, 상류사회의 별천지를 실감했다. 요즘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 식사 준비의

인 스타가 된 뒤 다시 이곳을 찾아 공연하며 축제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5월 21일 개막된 금년도 축제는 8월 30일까지다. 공연 라인업은 항상 그랬듯이 고전부터 근현대 작품까지 다채롭게 구성, ‘토스카’(푸치니), ‘이탈리아의 터키인’(로시니), ‘오페라’(몬테베르디) 등과 브리튼의 ‘빌리 버드’ 등 6편. 특히 ‘토스카’가 무대에 오르는 것은 92년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엄청난 화제와 기대를 불러 모으고 있다. 로마의 어두운 음모와 고문, 배신, 투신자살로 이어지는 격정적인 푸치니의 드라마를 공연하는 것은 전원풍 오페라를 선호해온 글라인트본으로서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여름 축제가 끝나면 낙엽지는 잔디위에서 가을 프로그램 (10월 14일~12월 13일)이 다시 시작된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 물결 사이로 샴페인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 뒤로 흐르는 모차르트의 선율은 글라인트 본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임에 틀림없다. ..

“경제적 차별화 수용할 때 경제가 발전”

‘평등 민주주의’는 저성장-양극화라는 함정에 빠져

대한언론 특별기획 박정희 경제기적 재조명 ⑪



좌승희 박사
아주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1979년 10월 26일 오전 삼교천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

2. 한국의 정치·경제체제와 경제 변천사

2-1. 새로운 정치·경제학 모형

이상의 관점을 활용하면 정치·경제체제와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한 정치·경제이론의 보편적인 원리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경제체제의 변천과 경제발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우측 <표 1>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조합으로 정치·경제체제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위의 삼위일체 경제발전이론의 핵심인 ‘경제적 차별화’와 ‘경제 평등주의’라는 경제질서의 구분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라는 정치질서의 구분과 조합하면 정치·경제체제를 다음의 4가지 체제로 분류할 수 있다. (민주정치+경제적 차별화)시장(차별화)민주주의, (민주정치+경제평등주의)평등민주주의, (권위주의정치+경제적차별화)시장(차별화)권위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정치+경제평등주의)평등권위주의(전체주의). 이들 4체제의 국가별 사례는 표 안에 정리하였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저서로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세모글루와 로빈슨 (Acemoglu & Robinson)은 이 저서에서 정치·경제체제를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 2체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으나, 한국발 박정희 시대의 경험은 이를 <표 1>과 같이 4체제로 분류해야 그나마 세계 경제발전의 다양한 체제별 차이가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2체제 모형은 포용적 제도라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택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민주·시장경제를 해도 성공하는 나라가 많지 않고 그렇지 않고도 성공한 사례가 많은 현실을 보면 그 설명력이 크게 취약해 보인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새로운 4체제 모형은 현실 설명력이 월등한 진일보한 정치·경제체제 분류법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만난 로빈슨 교

수는 자신은 복잡한 분류는 싫다고 했지만, 세상은 흑백처럼 단순하지 않다.)

새로운 정치·경제체제 모형의 핵심은 표면적인 형식으로서 정치체제보다 그 체제가 어떤 경제질서를 수용하느냐 하는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민주냐, 비민주냐 하는 정치체제 선택과 관계없이 경제적 차별화 질서를 수용하면 경제가 발전할 수 있지만 반대로 경제 평등주의를 수용하면 경제발전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삼위일체 경제발전 이론의 핵심 원리인 경제적 차별화를 수용하는 정부(정치)는 발전할 수 있지만 경제 평등주의에 빠지면 어렵다는 명제가 정치체제와 관계없는 보편적 경제발전 원리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성장과 분배 성공한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이상향 한국·싱가포르·대만 빼고 후진국서 성공한 국가 없어

이에 의하면 권위주의라는 박정희 시대나 싱가포르의 이광요 시대나, 사회주의 독재라는 지금의 중국이 왜 서구식 민주주의를 안 했는지도 경제기적이 가능했는지 기존의 학계는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새로운 정치·경제학 분류체제에 의하면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니라도 ‘경제적 차별화’ 정책 패러다임을 고수하여 ‘시장 권위주의 체제’를 했기 때문에 기적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구민주주의 최정상이라는 유럽이나 미국이 장기 저성장과 분배악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유 또한 기존 경제학계가 설명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분류체제에 의하면 이들 선진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평등주의 이념에 경도되어 과도한 재분배 정책과 반기업 정책을 추구하는 ‘평등민주주의’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성공하는 민주주의는 반드시 ‘경

제적 차별화’ 정책을 채택하는 ‘시장 민주주의’이어야 하지만 민주정치의 평등 지향적 속성상 시간이 갈수록 ‘평등 민주주의’로 흘러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선진국 함정에 빠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서구는 일본의 명치시대나 박정희나 싱가포르, 그리고 지금의 중국처럼 (국가 간에 다소의 차이가 없지 않지만) 불완전한 민주주의인 ‘시장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20세기 이후 ‘시장 민주주의’로 진입했으나, 그동안 중국을 빼고 모두가 복지국가를 이룬다고 ‘평등 민주주의’로 변형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험적으로 보면 성장과 분배에 모두 성공하면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체제는 현실적으로 이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관련하여 중국이 지금의 협의 민주

주의(deliberate democracy)를 중국식 민주주의라 하면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채택할 의향이 없음을 내비치고 있음도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20세기 중 오늘날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을 빼고 후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이 없는 이유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시장 권위주의’가 필요한 산업혁명 과정에 식민국이었던 서구의 민주주의가 그대로 이식되면서 서구 복지국가 모형이 너무 일찍 이식되어 조속하게 ‘평등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점은 지금의 한국이 선진국 초입에서 보이는 저성장과 분배악화의 ‘선진국 함정’과도 유사하다. 여기서 소련 공산체제의 몰락과 실패 국가 북한의 현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공산독재와 평등한 경제가 결합된 전체주의 체제의 피할 수 없는 운명적 결과이다.☞

<표 1> 정치·경제체제와 경제발전의 관계

정치질서 경제질서	민주주의	권위주의
경제적 차별화: 경제정의 추구 (성과에 따른 공평 배분 선호)	시장 (차별화) 민주주의 (2차대전 후 자유민주 세계) ----- 우파 민주주의:김영삼/ 이명박/박근혜 ↓	시장 (차별화) 권위주의 (서구, 일본,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의 산업혁명) ----- 이승만/박정희/전두환 ←
경제 평등주의: 사회정의의 추구 (성과와 무관한 평등 분배 선호)	평등민주주의 (60~70년대 이후 서구 복지국가, 현재의 한국) ----- 좌파 민주주의: 김대중/ 노무현/문재인 →	평등권위주의(전체주의) (공산사회주의, 북한)

“카파도키아 열기구 탑승...인생 버킷리스트”

‘유럽의 관문’ 튀르키예 8박일정 패키지 여행

‘에어워커’의 세계 여행 ⑤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곳은 유럽의 관문 튀르키예(옛 터키)입니다.

패키지 여행중 가장 가성비가 높은 지역으로 풍부한 역사·문화 유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 편리한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매년 5천만명이 넘는 해외 관광객이 찾는다고 합니다. 국내 대부분의 여행사가 튀르키예 7~10일 투어 상품을 팔고 있으며 지금도 100만원 중반대로 다른 유럽지역의 절반 정도면 갈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간 것은 10년 전인 2016년 3월이었습니다. 간단한 일기 형태로 여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트로이 목마앞에 선 필자.

3월 6일(금)

오전 9시30분 인천공항 이륙. 신문 3종, 영화 3편 보고 밥 2끼 먹으며 14시간 만에 이스탄불 국제공항 착륙!

현지 시간 오후 3시30분. 서울과 시차는 8시간. 이스탄불의 차량 정체가 극심하다. 온몸이 녹초가 되어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잠자리에 들다.

3월 7일(토)

아침 일찍 이스탄불 관광에 나서 오벨리스크와 히포드럼 광장, 이슬람 사원 블루모스크,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공존하는 성소피아 성당을 둘러보다. 이슬람의 예배시간을 알려주는 아잔소리를 들으며 보스포로스 해협 옆을 달려 5분만에 아시아 대륙으로 건너가다. 6시간을 달려 휴게소에서 점심먹고 다시 3시간을 버스에서 시달린 후 도착한 곳이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샤프란불루!

석탄과 철광석의 도시 위에 전통 가옥과 옛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마을! 한 시간여 마을을 훑어보고 다시 3시간 어둠속을 달려 이나라의 수도 앙카라에 닿다.

3월 8일(일)

‘4, 5, 6’을 아시나요? 4시 기상, 5시 식사, 6시 출발! 6:25 참전용사 위령탑이 있는 한국공원에 들러 묵념한 뒤 암굴 괴석의 카파도키아로 향하다. 3,000m가 넘는 설산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들녘엔 파란 색이 돌아나고 복숭아, 살구꽃, 체리, 매화가 화사하게 꽃망울을 터뜨린다.

투즈 소금호수를 거쳐 로마 군인들의 박해를 피해 기독교인들이 숨어

지냈다는 지하도시 데린쿠유(깊은 우물)를 찾다. 2만여명이 250여년 동안 살았다는 데린쿠유는 방과 부엌, 교회, 학교, 마굿간에 공기 순환시스템까지 갖추고 그 안에서 포도주까지 제조해 마셨다고 한다.

항아리 케밥으로 점심을 때우고 카파도키아 사파리투어에 나서다. 수백만년전 화산이 터진 후 화산재가 쌓여 응회암이 되고 그위에 다른 화산재가 쌓여 기기묘묘한 형상을 연출해 놓았다. 영화 <스타워즈>가 이곳의 독특한 지형을 배경으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3월 9일(월)

3대가 덕을 쌓아야 탈수 있다는 카파도키아 열기구를 타러 새벽에 호텔을 나서다. 4명씩 네칸에 16명이 한바구니에 타고 천천히 떠올랐다. 동녘 하늘에선 붉은 태양이 고개를 내밀고 발아래 지상엔 화산암들이 저마다의 자태를 뽐낸다. 탄성이 절로 터져 나오다. 셀주크 시대의 수도였다는 콘야를 거쳐 안탈리아로 향하다.

토레스 산맥 1,850m 고지엔 아직 희끗희끗 잔설이 남아 있는데 지중해가 그림처럼 어슴푸레 나타난다. 오랜 지, 바나나 등 열대성 과일들이 자라는 지역이다.

오늘의 숙소는 리키아 월드 골프리조트. 로비에서 침실까지 10여분, 또 식당까지 10여분 걸릴만큼 엄청난 규모의 호텔이다. 갖가지 음식이 넘쳐나고 식욕도 덩달아 솟구쳐 양껏 먹다.



하얀 석회층과 푸른 온천수가 어우러진 파묵칼레의 환상적인 정경.



에페소 유적지의 상징적인 건축물 셀수스 도서관.

3월 10일(화)

안탈리아 시내에 들러 구시가지지를 둘러보다. 북유럽의 부자들은 이 지역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해 놓고 겨울철엔 노부모가, 여름 휴가철엔 젊은 자녀들이 활용한다고 한다. 산길을 다시 오르락 거리며 대리석 광산(?)을 차창 밖으로 훑어보고 ‘목화의 성’ 파묵칼레에 입성한다.

14세기 대지진으로 매몰된 대규모의 원형극장을 먼발치로 바라보고 온천욕장에 들어서니 관광객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온천과 수영을 즐기고 있다. 엘리베이터 없는 호텔. 무거운 짐을 2~3층으로 옮겨야 하는데 호텔 보이가 1유로 팁을 받고 날라준다.

3월 11일(수)

포도주로 유명한 쉬린제 마을에 들러 이 고장 갖가지 과실주를 맛보다. 막바로 2천년의 세월이 고여있는 에페소를 찾다.

소극장 ‘오데온’을 비롯해 히포크라테스가 근무했다는 병의원, 헤라클레스의 문을 거쳐 화려한 상점가와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신전을 차례로 훑어보다.

헤라클레스의 문에 달린 니케 여신의 조각상을 유심히 살펴보니 왼손엔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관을 들고 오른손은 밀다발을 들고 있다. 그의 날개에서 세계적인 브랜드 나이키의 로고가 탄생했다고 한다.

3월 12일(목)

전설의 도시 트로이를 거쳐 다시 이스탄불로 귀환하다.

호메로스는 그리스-로마 신화를 한편의 대서사시 일리아드에 담았고 독자들은 그저 신화로만 여겼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독일인 사업가 하인리히 슐리만은 이곳을 발굴하여 화산에 묻힌 신화의 도시를 재현해냈다. 페리호를 타고 30여분 만에 보스포로스 해협을 건너 이스탄불의 유럽쪽으로 들어오다. 차량과 사람이 넘쳐나는 이스탄불의 도심으로 진입, 실크로드의 종착지 <그랜드 바자르>를 찾아가다.

3월 13일(금)

이른 아침 보스포로스 해협으로 나가 유람선 위에서 이스탄불 시내를 바라 보다. 이슬람 사원 첩탑과 다리, 레스토랑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다음 코스는 돌마바흐체 궁전! 눈길을 끄는 것은 방마다 36개의 상들리에가 걸려있고 그중 하나는 무려 4.6t 무게에 723개의 촛불을 밝혔다고 한다. 그 이전에 술탄들이 거주하던 톱카프 궁전은 1,400m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특히 오스만제국의 부를 상징하는 보석관은 에메랄드가 박힌 단검을 비롯, 86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등 숭한 보석들이 전시되어 있다.

궁전 탐방을 끝으로 이번 여행을 마무리했다.☺

박진환 (J & J 미디어 대표·본회 회우)

‘보양식 대명사’ 민물장어, 초여름 달군다

맛 순례 ⑤

동의보감·본초강목선 기력 치료제로 각광



이병대
본회 고문
전 동아일보·KBS기자
본회 20, 21대 회장

장어의 계절이 왔다.

예부터 장어(長魚, 鰻魚, 鱺魚)는 기력보충에 뛰어나 보양식보다는 치료제로서 귀하게 여겼다. 동의보감에서는 허약체질 개선이나 영양실조, 폐결핵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본초강목에서도 양기를 북돋우고 온갖 균을 죽일 정도로 인체에 유익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민물장어가 대중식, 보양식 메뉴 ‘장어구이’로 대중에게 다가선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고창 선운사 앞 주진천(또는 인천강) 10km 지역은 만조 때 바닷물이 밀려오면서 민물장어들이 무리지어 올라오는 독특한 생태환경을 갖추고 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수역(汽水)에 바람(風)을 타고 강(川)으로 올라오는 장어라 해서 풍천장어라고 불린다. 선운사 앞길에는 풍천 장어구이 집들이 지역특산으로 줄지어 영업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조리법은 장어구이다. 장어의 내장과 뼈를 제거한 뒤 숯불위에서 소금을 뿌려 간을 하는 소금구이가 기본이다. 고추장, 간장, 생강 등의 양념장을 발라 구워먹는 양념구이도 흔하다. 장어를 많이 먹는 일본에서는 ‘가바야키(蒲焼)’라 불리는 양념구이가 주류인데 도쿄(東京)를 중심으로 하는 관동(關東)과 대판(大阪)을 중심으로 하는 관서(關西) 구이 조리 방법이 다르다. 관동 방식은 장어의 내장을 배를 가르지 않고 등을 따서 제거한다. 배를 가르는데는 사무라이의 활복을 연상시킨다는 문화적 배경 때문이다. 장어를 한번 구운 뒤 찜통에 다시 찌는데 이 과정을 통해 기름기가 빠지고 살이 연해진다. 그 다음 다시 양념을 발라 구워 젓가락만 대도 살이 으개질 정도로 부드러운 게 특징이다.

한편 관서 방식은 우리나라처럼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한 뒤 소금을 뿌려 굽는데 ‘시라야키(白焼)’라 한다. 장어에는 혈관과 두뇌발달을 돕는 불포화지방산(EPA, DHA)을 비롯해 건강과 면역력(레티놀), 항노화와 피로해소(비타민E, 카르노신), 관절



고창 선운사 장어거리.

건강(콘드로이진), 활력과 위장보호(MUCIN)를 돕는 성분이 풍부하다. 장어는 민물과 바다를 오가는 어류로 동아시아 뱀장어(Japonica)의 경우 수천km 떨어진 태평양 마리아나제도 인근 깊은 바다에서 알을 낳고 수정을 하는데 산란을 끝낸 어미는 그곳에서 생을 마친다. 알에서 깨어난 장



(위) 장어소금구이 (아래) 일본 우나쥬.

‘개랑포구 봄이 되어 뱀장어 물때이니/ 물 결속에 뱀같은 놈들이 해안가에 몰려드네./ 이 고기 생김새가 뱀같다고 하지 마오./ 술 거르고 구우니 제일의 맛이라네. [다산의 ‘탐진어람(耽津魚覽)’에서]. 황상과 이학래는 다

렇게 말했다고 한다. “자네 꼬리 먹고 힘좀내게.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힘이 없어야 되겠나. 이 장어처럼 끝까지 밀어붙이면 안 될게 없어. 자 한잔 들고 현장에 가자고”[강현구의 ‘CEO의 식탁’에서]

정약용 제자들 스승 건강 위해 장어잡이 온힘 이병철·정주영회장 생전에 ‘장어사랑’ 유명

어는 투명하고 버들잎 모양의 ‘렙토세팔루스(leptocephalus)’ 단계로 해류를 타고 북상하는데 4~6개월 지나, 육지 근처에 도달할 즈음이면 ‘실뱀장어’ 모습으로 변한다. 실뱀장어들은 봄철에 민물냄새를 맡고 우리나라 금강, 영산강, 한강 등의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온다. 이때 밤에 햇불을 밝히며 실뱀장어 잡이에 나서는데 시중의 장어는 모두 이렇게 잡은 실뱀장어를 양식한 것들이다. 장어는 인공 부화가 어렵다.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의 민물장어는 그 속(genus)명을 Japonica장어라고 부르는데 19세기 중엽 네덜란드와 독일학자들이 일본의 장어를 표본으로 삼아 연구했기 때문에 Japonica장어로 표기했다.

강진에 유배간 정약용은 많은 제자를 길렀는데 이 가운데 황상(黃裳)과 이학래(李學來)는 스승의 건강을 늘 걱정했다. 강진군 근동면 소재 탐진강 하류 개랑(介良)포구 부근은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汽水)지역이어서 예부터 장어잡이가 성했다. 황상과 이학래는 여름이면 개랑포구에서 장어를 굽고 막걸리를 걸러 스승을 모셨다.

산이 해금된 뒤에도 장어를 들고 천리길을 걸어 일년에 두세차례 경기도 마재의 스승을 찾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병철 삼성회장과 정주영 현대회장의 장어사랑도 대단했다. 이병철 회장은 신라호텔 ‘아리아케’에서 주로 아들 이건희 회장이나 삼성간부들과 식사를 했다. “이 소스 한 방울에 비결이 담겨있네, 재료의 근본을 모르면 이런 맛을 유지할 수 없지.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지. 기술의 근본, 품질의 근본을 모르면 일류가 될 수 없지”[박상하의 ‘이기는 정주영, 지지 않는 이병철’에서]

이병철 회장은 재계원으로 모임인 ‘목요회’멤버(구자경 LG회장, 최종현 SK회장, 조중훈 한진 회장)와 자주 ‘아리아케’에서 장어구이를 즐겼다고 한다.

현대 정주영 회장 역시 장어를 좋아했다. 용산구 후암동의 일미 장어집, 파주의 반구정 나루터집, 그리고 신라호텔의 아리아케를 자주 찾았다.

정 회장은 장어를 먹을 때도 마치 공사 현장에서 지휘하듯 활기가 넘쳤다고 한다. 정 회장이 함께 장어를 먹던 김윤규 전 현대건설사장에게 이

오래전에 부여 백마강 ‘구두레’포구의 유명 장어집에 갔었다. 숯불에 지글거리며 식욕을 돋우는 장어를 충청도 앗은뱅이 술 ‘소곡주’를 곁들여 먹는 맛이란 정말이지 설명할 수 없는 최고의 맛이였다. 일본에 가끔 들를 때면 장어덮밥을 먹는다. 음식 맛에 앞서 매번 느끼는 것은 한·일 두 나라에서 음식값을 인상하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과감’하게 일본은 ‘조심’스럽게 인상한다는 느낌이다. 어느 날 설령탕 한 그릇값을 1만 원에서 1만5천 원, 2만 원으로 갑자기 올려 버리는데 비해 일본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일본의 특정도시 특정식당을 해마다 방문해 보면 음식 가격이 1년 전과 같거나 인상되었다도 우리 돈 1천원 정도 안팎이 대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음식 값이 일본에 비해 비싸다는 느낌마저 든다.

예부터 몸이 지치는 여름이 오면 보양식을 찾는다. 이번 여름은 무척 덥다는 예보이다. 장어 몸값은 상한가를 치겠지만 식욕을 돋구는 장어의 고소한 냄새를 어찌 지나칠 수만 있겠는가. ☞



대한언론인회 2026 춘계역사문화탐방에 참여한 회원들이 교동도 화개정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화도 화개정원 전등사 역사문화탐방

대한언론인회(회장 이종세)의 강화도 역사문화탐방 행사가 지난 5월 22일 정형수(90) 원로 등 80명의 회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오전 8시 30분 관광버스 3대에 분승,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를 출발한 회우들은 낮 10시 40분 강화도 교동도 화개정원에 이어 오후에는 고구려 소수림왕 때 창건한 전등사(傳燈寺)를 둘러보았다.

약 18만 그루의 수목과 관목, 초화로 꾸며진 화개정원은 조선조 10대 임금 연산군의 유배지로, 유배 당시 그가 머물던 초가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조형물로 형상화한 곳. 화개정원

의 전망대에서는 7km 거리인 북한 황해도 연백평야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전등사에서는 조선왕조의 중요한 사적들을 보관했던 정족산 사고,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장사각, 왕실 족보인 선원계보기략 등 문서를 보관했던 선원보각 등을 살펴보았다.

즐겁고 보람찬 역사탐방, 정확한 진행이 돋보였다. 푸짐한 점심에 대형 고급 아디다스 타월 선물까지 받아들이고 프레스센터 앞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였다.

(글 사진 김윤찬·본회 회우 전 서울신문 사진부장)

회 우 동 정

‘한강포럼 30년사’출판 기념회



김용발 회우(본회 전 부회장, 한강포럼 부회장)가 지난 5월 15일 서울 중구 통일로 바비엡2 교육센터 그랜드볼룸에서 371회 포럼을 겸한 ‘한강포럼 30년사’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신아일보 만남의 날’ 가져

신아일보 사우회(회장 김용발)는 지난 5월 11일 서울 중구 배재반점에서 강두모 김영환 김종하 박교원 박현수 이금규 장욱 정준창 한양인 회우 등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신아일보 만남의 날’을 가졌다.

김화 회우 삼강문화회 수필대상



삼강문화회(회장 장석영)는 2026년 삼강문화 신인공모에서 수필부문 대상에 김화, 신인상 시 부문에 한양인, 김영환 회우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연말에 있을 예정이다.

유한준 회우, 칼럼 800회 연재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 칭호 남발되는 세상, 사도(師道) 바로 세워야」 주제로 ‘스승의 날 유래’, ‘존경받던 스승상(像)에서 폭행당하는 교사의 모습’ 등을 보면서 만사만감(萬事萬感)이 교차된다는 글을 인터넷신문 <그린매일>에 800회째 칼럼으로 실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동환 회우(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5월12일 별세 향년 86세

김영길 회우(전 KBS춘천방송국 보도부장)5월17일 별세 향년87세

윤재홍 회우(전 KBS제주총국장) 5월12일 부인상

언론가 단신

동아일보 동우회 단합대회 성료

동아일보 전직 사우 1,100여 명의 모임인 동우회(회장 최맹호)는 지난 5월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2026년 임시총회 겸 단합대회를 열었다.

단합대회에 참석한 120여 명의 회원들은 4성 장군 출신인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들은 뒤 오찬을 갖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체육기자연맹 김봉진회장 취임

한국체육기자연맹(회장 양종구)은 지난 5월 18일 2026년 총회를 열고 제16대 회장에 김봉진 KBS 스포츠국 기사를 선출했다. 신임 김 회장은 21일 취임했다.

고침본지 5월호 20면
〈회우가 낸 새책란〉 효성오디세이아 기사중 ‘손인상은 송인상으로’ ‘손장관은 송장관으로’ ‘손광자’는 송광자로 바로 잡습니다.

연회비 감사합니다

연회비 납부 : <2025.4.27 ~ 2026.5.27>

<괄호 안은 연도, 단위 ; 원>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계좌 번호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회 비

배학철(평생회비) 300,000	오인문(23-26) 120,000
신대근(2025) 30,000	이선(2026) 30,000
조희곤(2026) 30,000	권영국(2026) 30,000
김영환(2026) 30,000	조원영(2026) 30,000
박우정(27-28) 60,000	김세경(26-27) 60,000

만보회 ‘경의선 숲길의 신록예찬

대한언론인회 만보회(회장 최귀조)는 지난 5월19일 제22회 걷기 모임을 ‘경의선 숲길’에서 가졌다.

이날 회원 15명의 따뜻한 동행을 반기는 듯 시원한 날씨 속에서 가까이 볼 수록 더 아름다운 5월의 신록과 장미 숲길의 5km를 걸으며, 회원들은 먹먹한 일상을 벗어나 도심의 여유와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참석 회원은 강두모, 김기원, 김조영, 김윤찬, 김홍운, 박교원, 안종우, 안홍렬, 유진수, 설임윤, 장 옥, 조희곤, 최귀조, 최영배, 황우연 <총무 최영배>

월간 **대한언론**

Korea Journal

- 발행인 겸 편집인 이 종 세
- 사무총장·상임이사 박 종 서
- 주 필 이 도 선
- 편집위원장·이사 이 재 호
- 편집국장 송 창 기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
-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kjclub.or.kr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 02)2001-7621
- Fax 02)730-1270



기자의 혼
꼭이지 않습니다

 **한국기자협회**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303호

튼튼하게
탄탄하게
돈돈하게

튼튼 탄탄 돈돈 하게
K스포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K스포츠 컨트롤 타워
올림픽회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K스포츠 크리에이터

스포츠와 문화, 교육과 산업을 융합한 창의적인 K-스포츠로
KSPO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스포츠 사업을
탄탄하게



스포츠 재정을
돈돈하게

•스포츠 복지 •스포츠 산업 •올림픽 유산 •체육인재 육성/지원 •기금조성사업 •KSPO스포츠단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